


교육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들의 학습전략, 학습스타일,  
학습자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  
among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Learning  
Styles, and Learner Variables  
of EFL University Students.

The logo of Inha University is a circular seal. It features a central shield with a blue background and a white cross. The year '1954' is written in white at the bottom of the shield. The words 'INHA UNIVERSITY' are written in a circular path around the shield. The entire logo is rendered in a light blue, semi-transparent watermark style.

2008년 2월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유 진

교육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들의 학습전략, 학습스타일,  
학습자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  
among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Learning  
Styles, and Learner Variables  
of EFL University Students.

The logo of Inha University is a circular seal. It features a central shield with a blue background and a white cross. The year '1954' is inscribed in the center of the shield. The outer ring of the seal contains the text 'INHA UNIVERSITY' in a serif font, with Korean characters '인하대학교' at the top.

2008년 2월

지도교수 서재석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유 진

이 논문을 이유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08년 2월



주 심 \_\_\_\_\_ (인)

부 심 \_\_\_\_\_ (인)

부 심 \_\_\_\_\_ (인)

## 감사의 글

우선 본 논문의 처음 연구계획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기틀을 잡아주시고 시종 자상하게 지도해주신 서재석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상하고 교수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조언이 있었기에 부끄러우나마 이 논문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논문심사과정을 통하여 아낌없는 지도조언을 하여 주신 문안나 교수님과 성귀복 교수님을 비롯한 영어교육과 여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거창한 포부와 커다란 의욕을 가지고 정말 수준 있는 논문을 작성하고자 했으나 본인의 미숙함으로 처음 생각처럼 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 작성 과정을 통해 연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또한 타인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개발 못지않게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에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며칠 밤을 같이 새며 방대한 양의 통계분석에 고생하고 세심한 설명도 아끼지 않았던 나의 친구 이화여대 심리학과 박혜진과 추운 겨울 날씨에 설문지를 함께 돌려주고 논문작성에 크고 작은 도움을 주었던 연세대 전기전자공학 박사과정 양성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늘 힘이 되어주었던 가족에게 가득한 사랑을 드리며 이 작은 결실의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 이 유 진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 살펴보려는 연구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목적은 학습자 변인(성별, 전공, 외국체류경험 유무, 사교육 유무 및 기간)에 따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4가지 기능별 학습전략(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학습자 변인(성별, 전공, 외국체류경험 유무, 사교육 유무 및 기간)에 따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11가지 영역 23가지 학습스타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로 학습전략과 학습 스타일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학습 스타일이 학습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위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Cohen과 Chi(2004)의 LSUI(Language Strategy Use Inventory and Index)와 Oxford(1990)의 SILL(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을 수정하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4가지 기능 별 학습 전략 설문지와 Cohen, Oxford, 그리고 Chi(2001)의 학습 스타일 설문지 LSS(Learning Style Survey)를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분석도구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Pearson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가 사용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로 도출된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학습전략의 사용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4가지 전략 중 쓰기학습전략만이 남녀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권 국가에 다녀온 경험의 유무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4가지 전략 중에서 듣기와 쓰기 학습전략의 집

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실 반응 방식 영역에서 직설형만이 남녀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듣기전략은 가능성 대처 방식, 현실 반응 방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읽기 전략은 가능성 대처 방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말하기 전략은 가능성 대처 방식, 과제 접근 방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쓰기 전략은 과제 접근 방식, 정보 습득 방식, 현실 반응 방식, 언어 규칙 처리 방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학습 스타일은 4가지 언어 기능 별로 듣기 학습 전략의 약 12.2%, 읽기 전략의 약 8.3%, 말하기 전략의 약 6.8%, 쓰기 전략의 약 12.1%를 설명하고 있듯이 주로 듣기나 쓰기 전략에 있어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음성언어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 전략에서 여자(13.1%~23.0%, 5.9%)는 남자(7.3%~12.1%, 4.7%)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는 언어의 네 기능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효율적인 학습 전략들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학습 전략에 대한 지도를 할 때는 보다 영어의 과제 중심, 또는 기능 중심의 전략 목록이 유용하다고 본다. 기능 중심의 학습 전략 목록이 신뢰성이 있으나 연구나 현장 적용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한지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전략 훈련을 계획할 때 다양한 전략을 골고루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학생들의 학습스타일에 대한 파악을 함께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감사의 글 .....	i
국문초록 .....	ii
목차 .....	iv
표 목차 .....	vii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 내용 .....	5
4. 연구의 제한점 .....	6
<b>II. 이론적 배경</b> .....	8
1. 외국어 학습전략의 정의와 분류 .....	8
1.1 외국어 학습전략의 정의 .....	8
1.2 외국어 학습전략의 분류 .....	11
1.2.1 O'Malley와 Chamot(1990)의 학습전략 분류 .....	12
1.2.2 Oxford(1990)의 학습전략 분류 .....	16
1.3 외국어 습득에서의 학습전략의 중요성 .....	21
2. 외국어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2
3. 효과적인 학습전략 .....	25

4. 학습스타일 .....	30
4.1 학습스타일의 정의와 분류 및 측정 .....	30
4.2 학습스타일과 학습전략 .....	32
<b>III. 연구방법 및 절차 .....</b>	<b>35</b>
1. 연구 대상 .....	35
2. 설문 및 조사 절차 .....	36
2.1 설문 작성 .....	37
2.1.1 영어 학습전략 사용 측정 .....	37
2.1.2 영어 학습스타일 선호 측정 .....	41
2.2 설문조사 절차 .....	44
3. 자료 분석 방법 .....	45
<b>IV. 분석 결과 및 논의 .....</b>	<b>47</b>
1. 학습전략과 학습자 변인 .....	47
1.1 학습전략과 성별 .....	47
1.2 학습전략과 전공 .....	49
1.3 학습전략과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 유무 .....	51
1.4 학습전략과 사교육 경험 유무 .....	52
1.5 학습전략과 사교육 기간 .....	52
2. 학습 스타일과 학습자 변인 .....	58
3. 학습스타일과 학습전략 .....	60
3.1 학습 스타일과 학습 전략의 관련성 .....	60
3.2 학습 스타일이 학습 전략 사용에 미치는 효과 .....	65



V. 결론 및 제언 .....	72
1. 결론 .....	72
1.1 학습자 변인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 .....	72
1.2 학습자 변인에 따른 학습 스타일의 차이 .....	73
1.3 학습전략과 학습 스타일 .....	74
2. 제언 .....	76
참고문헌 .....	79
부록 .....	88
ABSTRACT .....	93



## 표 목 차

<표 I-1> O'Malley와 Chamot의 학습전략 분류(1990) .....	14
<표 I-2> Oxford(1990)의 직접전략 : 기억·인지·보상전략 .....	19
<표 I-3> Oxford(1990)의 간접전략 : 상위인지·정의적·사회적 전략20	
<표Ⅲ-1> 설문조사 참여자 인적 구성 .....	36
<표Ⅲ-2> 학습 스타일 조사지 .....	42
<표Ⅳ-1> 성별에 의한 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	47
<표Ⅳ-2> 학습전략과 성별에 대한 변량분석 .....	48
<표Ⅳ-3> 전공에 의한 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	49
<표Ⅳ-4> 학습전략과 전공에 대한 변량분석 .....	50
<표Ⅳ-5> 영어권국가 체류경험유무에 의한 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51	
<표Ⅳ-6> 학습전략과 영어권국가 체류경험유무에 대한 변량분석 .....	52
<표Ⅳ-7> 사교육경험유무에 의한 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	53
<표Ⅳ-8> 학습전략과 사교육경험유무에 대한 변량분석 .....	53
<표Ⅳ-9> 사교육기간에 의한 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	55
<표Ⅳ-10> 학습전략과 사교육기간에 대한 변량분석 .....	56
<표Ⅳ-11> 성별에 의한 학습스타일의 평균 및 표준편차 .....	58
<표Ⅳ-12> 학습스타일과 성별에 대한 변량분석 .....	59
<표Ⅳ-13> 학습스타일과 학습전략 간 상관 .....	60
<표Ⅳ-14> 학습스타일과 듣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65
<표Ⅳ-15> 학습스타일과 읽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67
<표Ⅳ-16> 학습스타일과 말하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68
<표Ⅳ-17> 학습스타일과 쓰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7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현재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국제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 국제간 상호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영어의 습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영어 교사들은 학생들이 영어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개발되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영어 교사들의 교수 방법 측면에서의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 습득 성공 여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똑같은 환경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정보를 받아도 학습자마다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는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영어 교사는 한정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시간 뿐 아니라 그 외 시간에 효과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서 배우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

한 이유로 최근에는 외국어 학습 전략(foreign language learning strategie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외국어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저장하며 재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취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생각”(Chamot & Kupper, 1989; O'Malley & Chamot, 1990; Oxford, 1990)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교수전략과 구별된다. 학습전략을 학습자가 학습의 증진을 위해서 스스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볼 때 이러한 자기 주도적 행동은 학습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불러오고 자신감을 증대시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학습전략과 외국어 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의 상당수는 외국어 학업 성취도와 전략 사용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Green & Oxford, 1995; Rubin & Thompson, 1982). 즉,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전략의 사용은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전략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가 외국어로서 교육되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 이외에도 교실 밖에서 스스로 영어를 학습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학습자의 영어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학습자 스스로 효과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EFL 환경에 놓여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학

습전략에 관련된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학습을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전략과 성취도의 관계가 교육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지니려면,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보다는 학습의 과정에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또는 사회적인 변인과의 맥락에서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학습 전략 연구와 교육에서 학습스타일이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도(Cohen, 2003; Reid, 1995; Weinstein, Goetz, & Alexander, 1988)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가 어떤 학습스타일을 선호하며, 선호된 스타일이 학습의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스타일이 학업 성취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연구 결과와 아울러 이 연구 결과들이 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을 통하여 교육 실재에 기여하고 있다. 학습 스타일 연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성공적인 학습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선호하는 학습스타일을 알게 하고, 자신의 스타일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뿐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전략과 그것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 변인, 영어 학습 스타일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자 자율성(learner autonomy)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Oxford(1990)의 SILL(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과 Cohen과 Chi(2004)의 LSUII(Language Strategy Use Inventory and Index)를 수정한 설문지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학습전략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에서 성별, 전공, 영어권 국가 체류경험 유무, 사교육 유무 및 기간에 따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과 학습 스타일간의 관계, 마지막으로 학습전략과 학습스타일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스타일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Cohen, Oxford, 그리고 Chi(2001)가 개발한 학습스타일 조사지 LSS(Learning Style Survey)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연구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이 학습자 변인(성별, 전공, 영어권 국가 체류경험 유무, 사교육 유무 및 기간)에 따라 사용하는 4가지 언어기능(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에서 학습 전략의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이러한 학습자 변인에 따라 학습스타일의 사용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습 전략과 학습 스타일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는가?

넷째, 학습전략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학습 스타일은 무엇인가?

###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학습전략의 정의와 분류, 외국어 습득에서의 학습전략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학습전략과 성취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며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또한 학습스타일의 정의와 분류, 학습스타일과 학습전략과의 관계를 통해 학습스타일이 외국어 습득에서의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성공적인 학습자들의 사용하는 학습전략의 특성은 무엇이며, 학습 스타일과 학습전략 사용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서울, 인천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세 곳의 학습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먼저,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학습자 변인 중에서 성별, 전공, 영어권 국가 체류경험 유무, 사교육 유무 및 기간에 따라서 전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학습자 변인에 따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11가지 영역 23가지 학습스타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전략과 학습 스타일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와 더불어 학습 스타일이 학습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였다. 제 5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 제 4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영어 교육에서 학습전략 지도와 학습 스타일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 면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제한점은 연구대상 측면에서 볼 때 경인지역에 소재한 세 곳의 대학교의 대학생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 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제한점은 대학생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전략 사용 유형과 학습 스타일 사용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만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에 응해 준 학습자들에게 가능한 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성의 없이 대답을 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전략과 스타일 사용에 대한 조사에 있어 설문지 이외에도 면담(interview)이나 사고 구술(think-aloud)기법과 관찰(observation) 등의 방법을 함께 이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고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세 번째 제한점은 변량분석의 기본가정 중 하나인 집단별 '동일 사례 수 가정'이 위배되어 제Ⅲ유형 제곱합을 이용하여 F값을 구하였지만 특히 전공별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예체능계 집단의 수가 너무 적어 특정집단이 표집 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전체에 일반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학습스타일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스타일을 분석할 때 Eliason(1995)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라고 할지라도 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된 경우 이를 ESL/EFL 상황에 적용시킬 때 동일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자동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ESL/EFL 학습자들에게 영어로 된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 어휘나 표현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흔히 측



정도구를 모국어로 번영하지만, 원래 측정도구가 지니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감을 번역과정에서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원래 측정도구를 본 적이 없는 원어민에게 다시 한 번 영어로 되번역하는(blind back-translation)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영예, 1999).



##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외국어 학습전략의 정의와 분류를 살펴보고 외국어 습득에서의 학습전략의 중요성과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학습스타일의 정의와 분류를 살펴보고 학습스타일과 학습전략과의 관계와 아울러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전략과 우수한 언어 학습자의 학습전략 연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1. 외국어 학습전략의 정의와 분류

#### 1.1 외국어 학습전략의 정의

언어 학습전략에 대하여 연구가들은 각기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오늘날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습전략(learning strategy)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좀 더 쉽고 효과적이며 자기지시적으로 하기 위해 취하는 특정행위라고 기술하고 있다(Oxford, 1990).

외국어 학습전략의 연구는 1970년대 중반에 Rubin(1975) 과 Stern(1975)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동일한 교사에게서 동일한 교수방법으로 지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학생들은 외국어를 쉽게 잘 배우고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여 학습자들 사이에 개인차가 생겨나자 외국어에 대한 성공적인 학습자의 특징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그 후 그 사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가 사용하

는 전략을 조사하여 외국어 학습자에게 지도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훌륭한 외국어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지닌 핵심적인 전략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학습전략 사용과 외국어 성취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즉,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보다 더 적절한 방식으로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Green & Oxford, 1995). Weinstein과 Mayer(1986)는 학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학습자의 편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학습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Rubin(1987)은 학습전략을 직접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자가 학습을 구성하며, 학습전략이 언어체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Wenden(1987)은 학습자의 사고나 행동 과정은 관찰 가능하거나 관찰 불가능하며, 학습전략을 과제나 목표 지향적이며 의식적인 전개와 변화 가능한 여지가 있는 특정 행동이나 기술이라고 규정하였다.

O'Malley와 Chamot(1987)는 학습자 개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배우고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사고나 행동을 학습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학습전략은 개인이 과제에 적용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인지적, 연합적, 자율적 학습단계를 통하여 습득될 수 있는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Oxford(1990)는 학습전략이 학습을 더 쉽고, 빠르고, 더 즐겁고 더 자기 주도적이고 더 효과적이며 새로운 상황에 잘 전이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선택하는 구체적 활동, 즉 주로 학습자의 습득, 보유, 회상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학습자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의식적인 과정이나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Levine, Reves, 그리고 Leaver(1996)는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로 의식적으로 취하는 단계들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Cohen(1998)은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과정들로, 외국어 학습과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목표언어에 관한 정보를 저장, 보유, 기억, 적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실행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국내에서는 오준일(1992)이 영어의 언어적 지식이나 영어로 기호화된 정보를 학습하거나 기억하거나 또는 사용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또는 비의식적으로 취하는 관찰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은 행동을 영어 학습전략이라고 정의하였고 박기표(1998)는 학습자들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및 사고의 과정을 학습전략이라고 하였다. 채미정(2001)은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저장하며 사용하기 위해서 취하는 구체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전략은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장치이므로 언어 학습, 특히 외국어 학습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려면 학습자 자신이 취하는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습자 자신의 능동적 행동은 언어 숙달도를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주므로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습전략들은 모두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다. Oxford(1990)는 언어 학습전략의 장점이 되는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주요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다.
- 학습자들이 좀 더 자기 주도적(self-directed)이 되게 한다.
- 교사의 역할을 확장시킨다.

- 문제 지향적(problem-oriented)이다.
- 학습자가 취하는 특정한 행동이다.
- 인지적인 차원뿐 아니라 학습자의 여러 측면과 관계가 있다.
- 직·간접적으로 학습에 도움을 준다.
- 항상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 종종 의식적이다.
- 가르칠 수 있다.
- 융통성(flexibility)이 있다.
-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 1.2 외국어 학습전략의 분류

제2언어습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2언어 학습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2언어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전략들이 평가되고 그 유형이 밝혀져 왔다. 1981년까지 효과적인 제2언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학습전략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들이 있었고, 인지 심리학 분야에서는 독해와 문제해결에 학습전략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습전략 훈련에 초점을 둔 광범위한 연구가 약 10년간 있어왔다. 이 두 분야의 공통된 특징은 우수 학습자와 비우수 학습자의 정신작용을 비교하는 것이었으며, 학습전략의 개념이나 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할 이론은 약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능력 있는 학습자는 특별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자라는 생각은 학습전략이 능력이 우수한 몇몇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해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O'Malley & Chamot, 1990).

70년대에 이루어졌던 초기의 학습전략연구들이 대부분 학습자들이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또는 연구자들이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전략의 목록들을 만들어 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80년대 말 학습전략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조사되면서 특정한 그룹의 전략이 분류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학습전략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학습 사고 과정을 이용하는 인지적 전략과 학습을 조직하고 평가하는 상위 인지적 전략과 같은 정보처리 구조에 근거를 둔 O'Malley와 Chamot(1990)의 분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Oxford(1990)가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전략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전략을 구분한 것이다. 다음에서 이 두 가지 분류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1.3.1 O'Malley와 Chamot(1990)의 학습전략 분류

O'Malley와 Chamot(1990)의 분류는 인지이론에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인지이론에서는 각 개인이 정보를 '처리한다'(process)고 하고, 이런 인지활동에 관련된 사고를 '정신작용'(mental process)라고 한다. 그래서 학습전략은 정보를 이해하고 배우고 기억하도록 하는 특별한 정보처리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학습의 사고 과정을 이용하는 전략과 학습을 조직하고 평가하는 전략을 구분하고, 그 외에 사회적·정의적 작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정의적 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학습전략이 새로운 언어학습과 내재화를 의도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타협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 전략과 구별된다고 보고 주로 학습

전략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 큰 범주에 의한 전략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상위인지(metacognitive strategies)으로 학습 과정에 대한 사고, 학습에 대한 계획, 학습 과제에 대한 감시 및 학습의 진전을 평가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둘째는 인지적 전략(cognitive strategies)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학습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조직하는 기술로 특이한 학습과업에 한정되며 자료자체를 보다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전략이다. 셋째는 사회정의적인 전략(socioaffective strategies)으로 학습에서 공통된 목적인 학습 과업의 완수를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들의 각 범주와 하위 전략들은 아래 <표 I-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 -1> O'Malley와 Chamot의 학습전략 분류(1990)

	학습전략	내용
상 위 인 지 전 략	· 사전조직	학습할 개념, 원리를 미리 알아보고 이해한다
	· 통제된 관심	학습 과제에 유념하고 무관한 사항들을 무시
	· 기능적 계획	언어 구성 요소를 계획 연습
	· 선택적 관심	유념할 언어 입력의 특정 사항을 미리 결정
	· 자기 관리	자기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이해 조성
	· 자기 비판	듣기, 읽기의 이해 정도, 말하기, 쓰기의 정확 성, 적절성 점검
	· 자기평가	언어 학습 결과 평가
인 지 전 략	· 언어자료원	목표어 지시 자료의 활용
	· 반복	언어 모형의 모방과 되풀이
	· 분류	학습 순서 재조정, 재분류
	· 연역	의식적으로 규칙 적용
	· 심상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거나 기억하기 위해 시각 적 심상 이용
	· 청각표현	음 혹은 비슷한 음의 기억 보존
	· 핵심단어	제2언어의 새 낱말을 기억
	· 상술하기	언어 지식과 개념을 활용
	· 전이	다른 개념과 연관
	· 추리	뜻을 추측 가능한 정보 활용
	· 기록	개요 혹은 기록
	· 요약	새로운 정보 요약
	· 재결합	아는 것을 새롭게 결합
· 번역	모국어를 사용	
사 회 정 의 적 전 략	· 협동	문제해결, 정보 공유, 학습과제 점검, 언어 활동 모형화, 반성자료를 얻기 위해 동료와 협력
	· 명시적 질문	반복, 의역, 설명, 예시를 위해 교사나 원어민에 게 묻기



O'Malley와 Chamot의 이러한 분류방법의 약점은 인지 이론상에서 학습전략을 설명하면서 상위 인지적 전략을 너무 강조한 결과, 외국어 수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어지고 있는 사회·정의적 전략들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이효웅, 1994).



### 1.3.2 Oxford(1990)의 학습전략 분류

Oxford(1990)는 학습전략을 크게 직접 전략(direct strategies)과 간접 전략(indirect strategies) 두 가지로 구분한 다음 직접 전략에는 기억전략(memory strategies), 인지전략(cognitive strategies), 보상전략(compensation strategies)을 포함시키고, 간접 전략에는 상위인지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ies), 정의적 전략(affective strategies)을 포함시켰다. Oxford의 6개 전략은 19개의 하위 전략으로 세분화된다. 우선 직접전략(direct strategies)이란 목표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언어 학습전략으로서 언어의 정신적 과정을 요구하는 전략으로 기억 전략, 인지 전략, 보상 전략의 세 가지 하위 전략이 있는데 이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기억전략(memory strategies)은 학습자가 많은 어휘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으로서 새로운 정보를 잘 기억하였다가 회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때에 생각해 낼 수 있도록 한다. 흔히 분류나 연상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심상과 소리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체적 반응 혹은 감각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복습도 이곳에 해당된다.
- 인지전략(cognitive strategies)은 직접적인 언어 조직 및 변형과 관계된다. 같은 것을 반복하거나 음과 쓰기 체제를 이용하여 연습을 할 수도 있으며 논리적 분석 및 추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기록, 요약 등의 방법도 이곳에 포함된다.

▪ 보상전략(compensation strategies)은 외국어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할 때 학습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으로서, 때로는 문법과 어휘 면에서 부적절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듣거나 읽는 중에 여러 가지 언어적, 비언어적 실마리를 이용하여 추측하거나, 말하기와 쓰기에서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국어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언의 동작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우회적 표현이나 동의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간접전략(indirect strategies)이란 언어의 직접적인 사용과는 관련이 적지만 언어 학습을 도와주는 전략을 말한다. 모든 언어 학습 상황에 유용하고, 모든 언어 기능 즉,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에 적용할 수 있다. 하위 전략으로는 상위인지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이 있다.

▪ 상위인지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하는 방법과 관련된다. 학습에 집중하기 위하여 복습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학습 내용과 연계시키거나 잘 듣기 위하여 말하기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 정의적 전략(affective strategies)은 언어 학습과 관련된 감정, 태도, 동기 등을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걱정해소, 자기 격려 및 감정 상태 점검과 같은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ies)은 학습자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전략이다. 질문, 동료와 협동 및 타인에 대한 이해나 감정 이입을 위하여 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알고자하는 일 등이 이에 포함된다.

<표 I -2>, <표 I -3> 는 Oxford가 제시한 여섯 가지 하위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Oxford는 O'Malley와 Chamot의 분류가 학습전략만을 분류의 범위로 한 것과는 달리, Oxford는 이전의 연구들을 포함하여 분류하면서 언어사용의 측면을 첨가하여 의사소통전략을 보충 전략(compensation strategies)이라는 이름으로 학습전략에 포함시켰다. Ellis(1994)는 이를 단점으로 지적하여 이 분류가 제2언어를 학습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 사이의 구분이 없고, 의사소통전략을 보충 전략에 포함시켜 분류한 것이 혼란스럽다고 하였으나, 학습전략을 폭넓게 그리고 계층적으로 파악한 것이 강점으로 보인다. 또한 Oxford는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성공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학습전략들을 자신의 분류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표 I -2> Oxford(1990)의 직접 전략 : 기억 · 인지 · 보상전략

	하위 전략	세부 전략
기 억 전 략	머릿속에서 관련짓기	모듬짓기 연상하기/다듬기 새 단어를 맥락 속에 넣어보기
	이미지 · 소리 이용하기	이미지 이용하기 의미지도 그리기 핵심어 이용하기 기억속에 소리 새겨 넣기
	복습 잘하기	체계적으로 복습하기
	동작 이용하기	신체 반응 · 감각 이용하기 기계적인 방법 이용하기
	연습하기	반복하기, 재구성하기 소리, 쓰기 체계 정식으로 연습하기 고정 표현, 패턴 인식하고 이용하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습하기
인 지 전 략	메시지주고받기	신속하게 개념 파악하기 메시지를 주고 받는데 참고자료 이용하기 연역적으로 추론하기
	분석 · 추론하기	표현분석하기 (언어간) 대조적으로 분석하기 번역하기, 전이시키기
	체계적으로 입 · 출력하기	메모하기 요약하기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아는 것 토대로 짐작하기	언어적 단서 이용하기 비언어적 단서 이용하기
보 상 전 략	말하기 · 쓰기에 서 부족함을 극복하기	모국어로 전환하기 도움 구하기, 새 단어 만들기 마임, 제스처 이용하기 의사소통을 일부 또는 전부 회피하기 화제를 선택하기 메시지를 조정하거나 비슷하게 만들기 우회적인 표현, 동의어 사용하기

<표 I -3> Oxford(1990)의 간접 전략 : 상위인지 · 정의적 · 사회적 전략

	하위 전략	세부 전략	
상 위 인 지 전 략	학습에 집중하기	전체를 보고 이미 아는 내용과 연결하기 주의 기울이기 말하기를 늦추고 듣기에 집중하기	
	학습을 준비하고 계획하기	언어 학습에 대한 정보 찾기 조직화하기 목적과 목표 세우기 언어과제의 목적 파악하기 (목적이 있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언어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 짜기 연습 기회 찾기	
	학습을 평가하기	자기 모니터 하기 자기 평가하기	
	정 의 적 전 략	불안감 낮추기	점진적인 긴장 완화, 심호흡, 명상 이용하기 음악 이용하기 웃음 이용하기 긍정적인 말하기
		스스로 격려하기	언어 학습 상황에 과감하게 대처하기 스스로 보상하기 감정에 귀 기울이기
		감정 다스리기	감정, 동기 등을 알기 위해 점검표 작성하기 언어 학습 일기 쓰기 다른 사람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사 회 적 전 략	질문하기	확인 요청하기 수정 요청하기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	동료와 협력하기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와 협력하기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하기	다른 사람의 문화 이해하기 타인의 생각과 감정 알기	

### 1.3 외국어 습득에서의 학습전략의 중요성

많은 학자들이 학습 전략의 중요성을 밝히고, 학습 전략에 대해 아는 것이 영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하였다. Bialystok(1978)은 제2 언어 학습 모델에서 학습 전략을 제2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찾아내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하면서, 공식적 환경에서 분명하게 도입된 학습전략은 내재적 지식(implicit linguistic knowledge)에 도움을 주어 결국 학생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Ellis(1994)는 제2 언어 습득 모델에서 학습자의 학습 전략 선택은 학습자의 신념, 정의적 상태, 일반적 요인, 기존의 학습 경험 등과 같은 학습자의 개인차와 목표 언어, 언어 환경, 수업 형태, 학습 과제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 두 가지는 언어 습득의 속도와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학습 전략은 다양한 학습자 요인과 학습 결과 사이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Oxford와 Nyikos(1993)는 학습 전략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인지 구조에 연관·재구성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더욱 발달된 스키마를 형성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McGoarty와 Oxford(1990)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 학습 전략의 중요성을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 학습자에게 알맞은 학습 전략은 성공적인 언어수행과 관계가 있다.
- 알맞은 학습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외국어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하다.
-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과는 달리 학습 전략은

가르칠 수 있다.

- 외국어 학습 계획에 학습 전략을 넣음으로써 교사와 학생에게 역할을 증가시켜 준다.

물론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해야야 외국어 구사 능력이 향상된다는 식으로 궁극적으로 외국어 학습의 성공 여부는 학습자 자신이 취하는 행동 또는 전략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본 바와 같이, 학습 전략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다양한 학습자 요인과 학습 결과 사이에 있어서 중재역할을 하여 학습자의 학습 성취의 수준과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2. 외국어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국어 학습자가 학습전략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Oxford와 Nyikos(1989)는 학습하는 언어, 학습 기간, 인식의 정도, 나이, 성, 태도와 동기의 정도, 학습 목표, 동기지향성, 성격의 특징, 일반적인 성격의 유형, 학습 형태, 적성, 전공이나 직업, 문화적인 배경, 학습 방법 및 학습 과제의 요구 사항 등을 들고 있다. O'Malley와 Chamot(1990)은 전략 사용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서 언어수업의 목표, 학습자의



언어학습경험의 정도, 언어과제, 학습동기 등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또, Ellis(1994)는 외국어 학습자가 학습전략을 사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학습자의 개인적인 요인과 상황적,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언어 학습에 대한 신념, 나이, 적성, 학습 스타일, 태도, 동기 유형, 동기 강도, 전체적인 인성유형, 직업이나 전공, 언어 학습 수준, 언어 학습 경험 등을 들 수 있고, 상황적인 요인으로는 목표어 학습환경, 학습 과업 유형, 언어 교수 방법, 교사의 기대, 언어 학습의 목적 등을, 사회적 요인으로는 성별, 국적, 언어, 사회적 지위, 문화적 배경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열거한 요인들이 학습자의 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전략 사용의 빈도와 사용하는 전략의 유형에 있어서 학습자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성별이 학습전략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학습전략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한다(Dreyer & Oxford, 1996; Ehrman & Oxford, 1989; Green & Oxford, 1995; Oxford & Nyikos, 1989). Dreyer와 Oxford(1996)의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전략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Politzer(1983)의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전략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더 많이 사용함을 보여주며 Maccoby와 Jacklin(1974)은 이러한 차이를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성향(social orientation)이 더 강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효웅(1994)이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전략 및 개별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남 · 여학생의 전략사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Tran(1988)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으며(오준일, 1996; Vandergriff, 1992) 전략 별로 성별간의 사용 정도가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었다. 가령 Kaylani(1996)은 여성이 기억전략, 보상전략을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했으나 사회적 전략, 상위 인지적 전략은 성별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학습 스타일도 학습자가 학습전략을 선택할 때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Ehrman & Oxford, 1990). Rossi-Le(1995)도 학습자의 학습스타일에 대한 선호도가 어떤 종류의 학습전략을 사용하는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학습의 성공여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분석하였다. Oxford, Park-Oh, Ito 및 Sumrall(1993)은 학습스타일이 학습전략의 사용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학습동기와는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습동기도 학습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동기부여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학습전략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한다(Nyikos & Oxford, 1993; Oxford & Nyikos, 1989). 또한 목표언어를 공부한 기간도 영향을 미친다. Nyikos와 Oxford(1989)에 따르면 5년 이상 그 언어를 공부한 사람은 4년 이하로 공부한 사람보다 기능적인 연습전략을 유의한 수준으로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대학생은 형식적 규칙과 관련된 전략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기능적 전략을 가장 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시험이나 과제를 통해 전통적이고 문형 중심의 교육 환경에 유용한 전략들에 편향된 때문으로 설명했다.

학업 성취도도 학습전략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언어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과 비교했을 때

특정 학습전략을 더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O'Malley 등(1985)의 연구에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보다도 더욱 다양한 종류의 학습전략을 사용하였고 학업 성취도가 다른 두 집단이 선호하는 학습전략이 서로 다를 것을 발견하였다.

몇몇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문이나 사회계통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공계통을 전공하는 학생들보다 학습전략을 일반적으로 더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분석적인 전략은 그 반대인 것으로 밝혀졌다(Ehrman & Oxford, 1989; Oxford & Nyikos, 1989; Politzer & McGroarty, 1985).

수업방식이나 시험방법을 통해 드러나는 교사의 기대도 학습전략 사용의 차이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수업에서 개별적인 문법의 학습을 강조한다면 학생들은 전반적인 의사소통전략보다는 분석이나 추론과 같은 인지적 학습 전략을 더 많이 개발하게 된다(Oxford, 1990).

이상에서 많은 변인이 언어 학습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교사는 학습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여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어 학습전략의 사용이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나아가서 학습자들의 학습전략의 효율적인 사용은 영어 학습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3. 효과적인 학습전략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는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의 비결을 발견하여 이를 비 성공적인 학습자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면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찾으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계속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Chamot & Kupper, 1989; Dansereau, 1985; Hosenfield, 1976; McGroarty & Oxford, 1990; Oxford & Groomall, 1988; Oxford, 1993; Reiss, 1985; Rubin & Thompson, 1982; Wenden, 1987).

이들의 연구는 학습 전략과 학습자의 제2 언어 또는 외국에 성취도 혹은 외국어 숙달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란 제 2언어 또는 외국어 학습에 성공한 학습자가 사용하는 전략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이들 연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효과적인 학습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 1) 수업을 할 때나 대화를 할 때 문맥이나 상황 혹은 몸짓이나 표정으로부터 의미를 추측한다.
- 2) 교사에게 문법 규칙의 예외적인 것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되풀이 하여 주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 3) 주요한 부분에 정신을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을 무시한 것과 같이 선별적인 집중을 한다.
- 4) 외국어로 라디오를 듣고, TV를 시청하고 외국영화를 보러 가고 그리고 정규 시간외에 랩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여러 종류의 매개체를 사용한다.
- 5) 제 2언어 또는 외국어로 먼저 생각하고, 수업 중에 외국어를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학교 밖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사귀고, 또는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친구들과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다.

- 6) 수업 중에 자원을 해서 대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교실 밖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때 실수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한다.
- 7) 혼자서 학습할 때 자기 자신의 발음을 정정하고 어떤 것을 말할 때 우회적 표현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는 수업 중에 자기 스스로 정확한 답을 되새기는 것과 같은 자기 감시를 한다.
- 8)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별 표시를 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거나 새로운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뚜렷하게 표시를 한다.
- 9) 단어나 구의 부분을 분석하거나 모국어와 목표어를 대조 분석하여 추론한다.
- 10) 음향적인 연상이나 반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암기한다.
- 11) 장·단기적인 외국어 학습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한다.
- 12) 판에 박힌 표현들을 잘 사용하고 원어민을 잘 모방한다.
- 13) 휴식을 취하거나 심호흡, 혹은 명상이나 음악과 같은 익살을 통해서 외국어 학습에 따르는 걱정이나 불안을 줄이려고 한다.
- 14) 자기 자신이 외국어 학습자로서 유능함과 자신감을 갖도록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격려한다.
- 15)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각 분야별로 혹은 전체적으로 학습의 향상을 스스로 평가를 한다.

위에서 열거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의 대부분은 ESL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발견된 전략이므로, EFL 학생이 사용

하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학습전략 연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학습자가 사용한 학습전략이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가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학습 동기, 영어 능숙도를 포함하였으나, 정작 영어 성취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드문 실정이며, 연구 결과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 학습전략과 영어 성취도 간의 높은 상관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는데, Song(1999)은 학습자들의 현재 영어 독해 실력보다 높은 지문의 이해도를 독해력으로 측정하고, 이 지문을 읽을 때 사용한 전략을 보고하게 하여, 학생들의 문법 및 어휘 시력을 함께 분석한 결과, 영어 독해력 변량의 52.9%를 독해 전략 사용이 설명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Ehrman과 Oxford(1995)는 불어와 서반아어를 포함한 34개 외국어를 배울 때 사용한 학습전략과 평균 23.5주 후의 말하기와 읽기 성취도를 분석하였는데, SILL의 인지 전략만이 말하기 능력과  $r=21(p<.02, \text{설명력 } 4\%)$ 의 관계를 보였고, 읽기 능력은 전략 사용과 관계가 없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낮은 상관이 나온 이유로 연구자들은 학습자들이 도달한 최종 외국어의 수준이 대부분 높아서 정상 분포를 이루지 않아 성취도 변화의 폭이 좁아서 상관계수가 낮아졌다는 가능성과 Green(1991, Bedell과 Oxford(1996)에서 재인용)에서 제시된 것처럼 학습 전략의 사용이 학습자들의 언어 능숙도와 비선형 관계를 이루어 상위 능력 집단은 학습 의존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전략과 외국어 성취도의 낮은 상관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Ham(2002)은 한국의 중위권 대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독해 학습 전략이 읽기 지필 고사 점수를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17.4% 설명하였으나, 자아 효능감 및 영어 성취 목표와 함께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을 때 독해 학습 전략의 설명력은 3.4%로 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Park(1995)역시 영어 사용과 학습에 대한 신념과 학습전략은 영어 성취도의 16%를 설명하였으나, 학습전략의 기여도는 5%에 불과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학습 전략과 영어 성취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영어 성취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와 영어 기능 별로 분리하여 분석할 때, 학습전략 사용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SILL과 학습전략의 목적에 따른 전략 목록을 사용하는 연구도 필요하지만 영어 기능 별로 학습을 할 때 사용되는 전략 목록을 사용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SILL의 학습 전략 영역은 인지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어서(Oxford, 1990), 이론적 접근이 중요한 연구자들에게는 유용하지만, 학습자들에게 교육용으로 제시할 때는 이론적 접근보다는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짓는 것이 더 유용하다. 예를 들어 SILL 7.0판에는 50개의 학습전략이 있는데 이 중에 어휘나 속어 학습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4개 문항인 반면, 읽기 전략은 5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기능적으로 보다 균형이 있는 전략 목록이 현장 적용성이 더 뛰어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의 네 기능에 대한 통합적 교육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영어의 네 가지 기능별 전략 연구 결과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 4. 학습스타일

### 4.1 학습스타일의 정의와 분류 및 측정

학습전략 연구와는 달리 제2 언어학습에서 학습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뒤늦게 1990년대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학습전략과 마찬가지로 학습스타일도 학습자의 언어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Ehrman & Oxford, 1995; Elliott, 1995, 재인용 박영예, 1999). 학습 스타일은 “학습자가 학습 상황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상호 작용하는 인지적이고, 정의적이며 심리적인 특성”(Keefe, 1979, p.4)으로서,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기여하는 학습자 변인의 하나이다. Schmeck(1988)은 학습스타일을 학습이라는 상황에서 표현되는 인성(personality)이라고 정의하고 “학습자의 인성 요인으로부터 분리된 학습 전략은 학습에 단기적인 도움 밖에는 주지 못한다”(p. 179) 학습 스타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습 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외국어 학습 전략의 사용과 그것이 외국어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외국어 습득 과정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학습스타일에 대한 분류와 측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교육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Learning Style Inventory(Dunn, Dunn, & Price, 1975)가 있는데 이는 환경적(environmental), 감정적(emotional), 사회적(sociological), 물리적(physical) 학습스타일을 측정하고 있다. 정의적/기질적 측면에서 학습스타일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Myers와 Briggs(1972)의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가 있는데 외향적(extrovert)/내성적(introvert), 직관적(intuitive)/감각적(sensing), 사고형(thinking)/감각형(feeling), 판단형(judging)/인지형(perceiving)의 네 가지 범주에 의해 학습스타일을 분류하고 있다. 한편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신체적 감각을 기준으로 하여 학습스타일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크게 시각적(visual), 청각적(auditory), 조작적(hands-on)/행동적(kinesthetic) 학습스타일로 분류를 하며, 어떤 신체적 감각선호도(sensory preference)에 의한 학습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Learning Channel Preference Checklist(O'Brien, 1990), Perceptual Learning Style Preference Questionnaire(Reid, 1984), Perceptual Learning Survey(Kinsella, 1993)등이 사용되고 있다. 제2 언어학습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학습스타일 측정도구로서 Oxford(1993)의 Style Analysis Survey(SAS)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학습스타일로 분류하고 있다.

- 1) 신체감각 선호도에 의한 분류 - 시각적(visual) 스타일,  
청각적(auditory) 스타일,  
조작적(hands-on) 스타일
- 2) 대인관계에 대한 분류 - 외향적(extroverted) 스타일,  
내성적(introverted) 스타일
- 3)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식에 의한 분류 - 직관적(intuitive) 스타일,  
구상적(concrete-sequential)  
스타일
- 4) 과제 접근 방식에 의한 분류 - 종결적(closure-oriented) 스타일,

개방적(open)스타일

- 5) 사고 전개방식에 의한 분류 - 포괄적(global) 스타일,  
분석적(analytic)스타일

## 4.2 학습스타일과 학습전략

학습스타일이 학습이라는 상황에 반응하는 개인의 안정적이고 기질적인 반응 유형이라면, 학습 전략은 학습 목표와 과제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되는 과업 지향적 행동이다.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 스타일과 학습 전략 사용의 관계를 최초로 시사한 연구자들은 Ehrman과 Oxford(1989)이다. 이들은 미국 국무성 산하의 FSI(Foreign Service Institute)의 연수자 78명을 대상으로 MBTI와 SILL을 실시하여 성별과 직업, 학습스타일에 따른 학습 전략 사용 정도를 분석한 후, 학습 스타일이 성별이나 직업 등의 학습자 요인과는 독립적으로 학습 전략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Ehrman과 Oxford(1990)는 학습 스타일 유형에 따른 학습 전략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앞서 언급된 자신들의 1989년 연구 대상자 중 20명을 부분 표집하고, 면담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 경향과 학습 전략 사용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각 학습 스타일에 적합한 교육 활동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MBTI에 의해 서로 양극화를 보이는 유형들은 학습 전략 사용에 있어서도 양극화된 현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외향형의 학습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회적 학습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반면, 내향형 학습자는 사회적 전략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였다. 감각형 학습자는 기억 전략을 사용한 유일한 학습자 유형이었고, 이들은 보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 반면, 이들과 학습 스타일의 대조를 보이고 있는 직관형 학습자는 보상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에서 각 학습 스타일에 적합한 교육 활동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외향형의 학습자에게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신체를 사용하는 활동이 이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내향형의 학습자는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정보를 충분히 내재화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수업활동은 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잘 계획된 과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Ehrman과 Oxford(1995)는 FSI연수자 및 관계자 855명이 34개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을 연구하여 외국어 말하기와 읽기 성취도가 MBTI로 측정된 직관형의 학습 스타일과 관련이( $r=.20, p<.0001$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BTI를 이용하지 않고, 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연구된 대표적인 학습 스타일은 장독립-장중속성이다. 장독립-장중속성 변인은 1940년대부터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개념으로 환경에서 제시된 정보를 인지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에서는 장중속성보다 장독립성이 성취도와 더 관련이 있는 것을 보고 되어 왔으나, 그 관련 정도는 연구 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Chappelle과 Roberts(1986)는 장독립성과 기말에 실시된 TOEFL시험 간에  $r=.78, p<.01$ 의 높은 상관이라고 보고 하였으나, Dreyer와 Oxford(1996)는 서로 다른 교수법에 의해 영어를 배운 학생들의 TOEFL 점수와 장독립성 간에  $r=.15$ 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낮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학습 스타일은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 더 나아가 영어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고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스타일이 영어 학습 전략이나 성취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서 이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인 소재의 A, B, C의 세 대학교의 대학생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대학 62명, B대학 59명, C대학 45명으로 총 166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성별이나 학년에 응답을 안했거나 전략이나 스타일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1명의 설문지는 분석 자료에서 배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인적 구성은 아래의 <표Ⅲ-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설문지 상의 전공 분류는 인문·사회, 예술·체육, 이·공학, 의·약 계열로 하였으나, 인원수의 적절한 분포를 위해 이·공학, 의·약 계열을 자연계로 표시하였다. 설문의 기타 항목에 적은 응답에 영어를 학습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항목의 기타응답으로는 ‘토익, 토플 등의 점수를 얻기 위해’, ‘원서로 전공 공부하기 위해’, ‘사회가 요구하여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개발을 위해’ 라는 응답이 있었다.

<표 III-1> 설문조사 참여자 인적 구성

변인	구분	인원수(%)
성별	남	87 (52.7)
	여	78 (47.3)
전공	인문계	79 (47.9)
	자연계	73 (44.2)
	예체능계	13 (7.9)
영어권 국가	유	42 (25.5)
체류 경험	무	123 (74.5)
	유	111 (67.3)
사교육 경험	무	54 (32.7)
	6개월 미만	56 (33.9)
	6개월~1년	12 (7.3)
사교육 기간	1년~2년	14 (8.5)
	2년~3년	2 (1.2)
	3년 이상	27 (16.4)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16 (9.7)
영어 학습 이유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어서	5 (3.0)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어서	3 (1.8)
	나의 미래의 직업에 필요하므로	120 (72.7)
	여행하는데 필요하므로	5 (3.0)
	기타	14 (8.5)
		총 165명

## 2. 설문 및 조사 절차

## 2.1 설문 작성

### 2.1.1 영어 학습전략 사용 측정

본 연구에서 영어 학습 전략 사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Cohen과 Chi(2004)가 개발한 언어 전략 사용 목록 지표(LSUII: Language Strategy Use Inventory and Index)의 6개 영역(듣기, 단어,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의 전략 중 4가지 기능(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전략을 추출하여 Oxford의 언어 학습 전략 목록 (SILL: 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의 목록 중 위의 각 4가지 기능 전략에 해당하는 문항과의 비교를 통해 중복되는 것을 수정 보완하여 4가지 기능 별로 8문항의 학습전략 문항으로 총 32문항의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SILL은 Oxford가 약 8,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만들어졌고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져 왔으며 Cronbach 알파 값이 .93 - .98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다(Oxford & Burry, 1993). SILL은 6개의 전략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기억전략으로 전체 50개의 전략 중 9개의 전략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인지전략으로 14개의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는 보상 전략이며 6개의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는 상위 인지 전략이며 9개의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째는 정의적 전략으로 6개의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 여섯째는 사회 전략으로 6개의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LSUII는 6개의 언어기능 영역에 대하여 19개 하위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언어 전략 8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문항들에 대한 내적 타당도의 척도인 Cronbach 알파 값은 .95로 높은 신뢰

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지를 SILL 7.0과 비교하였을 때 SILL의 50문항 중 33문항이 표현의 차이가 나기는 하나, 같은 전략에 관한 문항이었고, LSUII에 포함되지 않은 SILL의 전략은 인지 전략이 3개, 초인지 전략이 6개, 정의적 전략이 6개, 사회적 전략이 2개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학습전략에 대한 설문지의 32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다. Cronbach 알파 값은 .88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문지는 4가지 기능 전략으로 나뉘고 기능별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능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듣기전략

- **듣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
  1. 다른 사람이 영어로 말할 때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2. 영어 TV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영어로 제작된 영화를 본다.
- **영어의 소리에 익숙하게 하는 방법**
  3. 내가 들은 낯선 영어 발음에 관해 미국사람에게 물어 본다.
- **영어대화를 듣는 방법**
  4. 미국사람들이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단어 강세나 문장 강세에 주의를 기울인다.
  5. 영어를 들을 때 어떤 부분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어떤 부분은 무시하여 대강의 내용이해를 목표를 하는 듣기방법을 연습한다.
  6.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의 맥락에 주목한다.
-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



7. 다른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천천히 말하거나 다시 한 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8.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알아듣기 위해서 말의 어조를 힌트로 사용한다.

### 읽기전략

#### ▪ 영어읽기를 향상하는 방법

9. 가능한 많은 양의 글을 영어로 읽는다.
10. 내 수준에 맞는 영어 읽을거리를 찾는다.
11. 제목이나 소제목 같은 글의 구조에 주의를 기울인다.
12. 영어로 쓰여진 글을 처음에는 대충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주의를 기울여 다시 읽는다.
13. 영어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4.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읽는다.
15. 글을 읽을 때 머릿속이나 책의 여백에 요약해 나간다.

#### ▪ 막히는 단어나 문법사항이 있을 때 쓰는 방법

16. 읽는 내용의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비슷한 내용을 추측한다.

### 말하기전략

#### ▪ 스피킹 연습방법

17. 새 문법사항을 여러 다른 상황에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여 자신

감을 기른다.

▪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

18. 외국인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19. 영어로 말하다가 실수를 할까봐 두렵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로 말해보려고 한다.

20. 영어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추측해본다.

21. 요청하는 내용이나, 사과, 또는 불평하는 내용 등을 미국인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말해 본다.

▪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막혔을 때 쓰는 방법**

22. 선생님이나 영어 원어민에게 내가 영어로 말할 때 틀린 부분을 고쳐달라고 부탁한다.

23. 내가 쓰려는 정확한 표현을 모를 때 새 말을 만들어 내거나 추측해본다.

24.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영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 몸짓이나 손짓 같은 제스처를 사용한다.

**쓰기 전략**

25. 영어를 배울 때 느끼는 감정들을 영어 학습 일기에 적어 놓는다.

▪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막혔을 때 쓰는 방법**

26. 새 단어를 쓰는 연습을 한다.

27. 영작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

하며, 완성된 글이 얼마나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8. 나는 영어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써보려 한다.

(예 : 메모, 편지 등)

▪ **에세이나 보고서를 쓰는 방법**

29. 나의 생각을 전달할 정확한 표현을 모를 때 다른 표현을 써 본다.

30. 더 써나가기 전에 내가 쓴 것을 다시 읽어 본다.

31. 단어를 찾거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이나, 단어집 같은 참고서적을 사용한다.

▪ **에세이나 보고서의 초고를 마친 후에 쓰는 방법**

32. 다른 사람, 특히 미국사람에게 글을 읽고 고쳐달라고 한다.

### 2.1.2 영어 학습스타일 선호 측정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 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Cohen, Oxford, 그리고 Chi(2001)가 개발한 학습 스타일 조사지(LSS: Learning Style Survey)를 사용하였는데 시간적 여건을 고려해 학습 스타일에 해당하는 문항 수를 30문항으로 조절하여 본 연구를 위한 자체적 학습 스타일 선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LSS는 11개 영역의 23개 학습 스타일을 조사할 수 있는 1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들에 대한 내적 타당도의 척도인 Cronbach알파 값은 .86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학습 스타일 선호에 대한 설문지의 32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다.

Cronbach 알파 계수는 .655이었다. 설문지는 11개 영역으로 나뉘고 영역별 23개의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타일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Ⅲ-2>와 같다.

<표Ⅲ-2> 학습 스타일 조사지

영역	스타일	특징	문항수
신체 감각 선호 정도	시각형 (visual)	시각의존형, 책, 비디오, 도표, 그림 등의 매체 선호, 문자적 지시 선호	2
	청각형 (auditory)	듣고 말하기 활동, 강의, 오디오 테잎, 토론, 역할놀이 등 선호, 구두 지시 선호	2
	신체형 (kinesthetic)	신체 활동 선호, 게임, 프로젝트, 실험 등의 행위를 수반하는 활동 선호	2
학습 상황 선호 정도	외향형 (extrovert)	사회적, 상호작용적 학습과제를 선호함	1
	내향형 (introvert)	독립적인 학습 상황 선호	1
가능성 대처 방식	직관형 (intuitive)	미래지향적, 가능성 탐색 선호, 추상적 사고형, 단계별 지도를 싫어함	1
	구체형 (concrete)	현실지향적, 단계적 활동 선호, 매 단계마다 무엇을 왜 하는지 알기 원함	1
	폐쇄형 (closure-oriented)	모든 학습 과제에 주의를 집중, 일의 기한을 지킴, 미리 계획, 분명한 지시를 좋아함	1
과제 접근 방식	개방형 (open)	발견학습을 선호, 일의 기한이나 규칙에 대한 염려 없이 느긋하게 학습을 즐김	1
	포괄형 (global)	대강의 뜻이나 주요 개념을 아는 것을 선호, 모든 어휘나 개념을 몰라도 의사소통 가능	2
	지엽형 (particular)	세부적인 사실에 집중하고, 어떤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잘 기억함	2
정보 습득 방식	종합형 (synthetic)	대상을 잘 요약하며, 의미를 추측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좋아하며, 유사점을 쉽게 알아챈	2
	분석형 (analytic)	과제를 대조시키는 능력이 있고, 문법규칙에 집중함	2
	분리형	정보간의 다른 점을 잘 구별하여 기억. 소리	1

방법식	(sharpen) 결합형 (leveler) 연역형 (deductive)	나 문법 형태, 의미의 차이 등을 잘 알아냄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기억하거나, 정보간의 차이를 줄이거나 무시하고, 유사점에 치중함 일반화된 규칙을 갖고 시작하는 것을 선호	1 1
언어 규칙 처리 방식	귀납형 (inductive)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성을 찾아냄, 규칙이 나 이론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시작하는 것을 선호	1
복수 자료 처리 방식	장독립형 (field-independent ) 장의존형 (field-dependent)	주어진 상황에서 자료를 분리하거나 추려낼 수 있음.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는 데는 능숙 치 못함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은 있으나, 분리 하거나 추려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1 1
반응 시간 처리 방식	충동형 (impulsive) 숙고형 (reflective)	상황을 잘 파악하기 전에 행동이나 말이 앞 섬, 행동을 한 후에 생각이 뒤따름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심사숙고함, 자신의 즉흥적인 반응을 신뢰하지 않음, 생각 뒤에 행동이 따름	1 1
현실 반응 방식	비유형 (metaphoric) 직설형 (literal)	개념이나 언어를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효율 적인 학습이 이루어짐, 비유를 통하여 이해를 도움 개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언어 자료를 표면의 모습 그대로 다루기를 선호함	1 1
총 11개 영역	23개 유형		30문항
Cronbach 알파			.655

설문을 통한 조사 방법의 장점은 외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전략과 학습자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조사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관찰과 개인이나 집단적인 면담을 통한 조사와는 달리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가 충실히 설문에 응하여 주면 매우 능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략 연구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 방법과는 달리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이효용, 1994).

설문 전략은 32개, 설문 스타일은 3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리커드 척도(Likert-scale)을 이용하였다. 리커드 척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 등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 1: 전혀 또는 거의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Never or almost never used)
- 2: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다(Generally not used)
- 3: 때때로 사용한다(Sometimes used)
- 4: 대체로 사용한다(Usually used)
- 5: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사용한다(Always or almost always used)

## 2.2 설문조사 절차

설문 조사는 2007년 10월 초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의 목적이 영어 학습 전략과 학습 스타일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하였으며, 설문지에 응답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강조하였다. 특히 설문에 응답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닌 학습자 자신이 영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있지 않음을 설명하여 학습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진솔하게 설문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문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그리고 설문 내용에 있어서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이나 용어는 질문이 있을 경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문제별 변인 및 자료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자료는 SPSS 12.0 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학습전략과 학습자 변인

학습자 변인(성별, 전공, 외국체류경험 유무, 사교육 유무 및 기간)에 따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4가지 기능 별 학습전략(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을 각 학습자 변인으로, 종속변인을 각 학습전략으로 설정하여 각 집단별 학습전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2) 학습 스타일과 학습자 변인

학습자 변인(성별, 전공, 외국체류경험 유무, 사교육 유무 및 기간)에 따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11가지 영역 23가지 학습스타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을 각 학습자 변인으로, 종속변인을 각 학습 스타일로 설정하여 각 집단별 학습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3) 학습전략과 학습 스타일

학습전략과 학습 스타일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습 스타일이 학습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학습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학습 스타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변수 선택법은 이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 검정 절차(Stepwise selection)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 IV. 분석 결과 및 논의

### 1. 학습전략과 학습자 변인

#### 1.1 학습전략과 성별

학습전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되었고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은 사회적 전략(socially-based strategies)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Ehrman & Oxford, 1989; Green & Oxford et al., 1993; Politzer, 1983). 이러한 이유로 성별이 각 기능별 전략에는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각 학습전략을 종속변인으로 정하고 성별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학습전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1>에 제시하였고 남녀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IV-2>에 제시하였다.

<표 IV-1> 성별에 의한 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전략	성별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istening	남자	87	3.19	.61	1.63	4.88
	여자	78	3.34	.55	2.00	4.63
	합계	165	3.26	.58	1.63	4.88
Reading	남자	87	3.27	.52	2.13	4.75

	여자	78	3.38	.52	2.38	4.75
	합계	165	3.32	.52	2.13	4.75
Speaking	남자	87	3.19	.46	2.00	4.38
	여자	78	3.22	.45	2.13	4.38
	합계	165	3.21	.45	2.00	4.38
Writing	남자	87	2.78	.57	1.50	4.50
	여자	78	3.04	.49	1.75	4.25
	합계	165	2.90	.55	1.50	4.50

<표 IV-2> 학습전략과 성별에 대한 변량분석

전략	변량원	자유도	제Ⅲ유형 제곱합	평균제곱	F값	유의도
Listening	집단간	1	.937	.937	2.731	.100
	집단내	163	55.915	.343		
	전 체	164	56.852			
Reading	집단간	1	.461	.461	1.676	.197
	집단내	163	44.827	.275		
	전 체	164	45.288			
Speaking	집단간	1	.043	.043	.200	.655
	집단내	163	34.608	.212		
	전 체	164	34.650			
Writing	집단간	1	2.920	2.920	9.972	.002**
	집단내	163	47.733	.293		
	전 체	164	50.653			

\*\*p<.01

<표 IV-1>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모든 전략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이는 여자가 학습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 IV-2>에 제시된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4가지 전략 중에서 쓰기 학습전략만이 남녀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 학습전략과 전공

전공이 각 기능별 전략에는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공을 독립변인으로, 각 학습전략을 종속변인으로 정하고 전공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공에 따른 학습전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3>에 제시하였고 전공의 하위 수준인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집단 별 학습전략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IV-4>에 제시하였다.

<표 IV-3> 전공에 의한 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전략	전공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istening	인문계	79	3.30	.62	2.00	4.88
	자연계	73	3.20	.54	1.63	4.50
	예체능계	13	3.43	.61	2.63	4.50
	합계	165	3.26	.58	1.63	4.88
Reading	인문계	79	3.35	.50	2.13	4.75
	자연계	73	3.26	.53	2.13	4.75
	예체능계	13	3.53	.54	2.75	4.25
	합계	165	3.32	.52	2.13	4.75
Speaking	인문계	79	3.21	.47	2.13	4.13
	자연계	73	3.18	.43	2.00	4.38
	예체능계	13	3.30	.52	2.25	4.38
	합계	165	3.21	.45	2.00	4.38
Writing	인문계	79	2.95	.56	1.63	4.50

자 연 계	73	2.82	.55	1.50	4.13
예 체 능 계	13	3.11	.46	2.25	3.75
합 계	165	2.90	.55	1.50	4.50

<표 IV-4> 학습전략과 전공에 대한 변량분석

전략	변량원	자유도	제Ⅲ유형 제곱합	평균제곱	F값	유의도
Listening	집단간	2	.738	.369	1.065	.347
	집단내	162	56.114	.346		
	전 체	164	56.852			
Reading	집단간	2	.980	.490	1.791	.170
	집단내	162	44.309	.274		
	전 체	164	45.288			
Speaking	집단간	2	.175	.088	.412	.663
	집단내	162	34.475	.213		
	전 체	164	34.650			
Writing	집단간	2	1.290	.645	2.116	.124
	집단내	162	49.363	.305		
	전 체	164	50.653			

말하기 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의 평균값이 예체능계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박영예(1999)는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학생들이 인지전략을 좀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각 언어 기능의 사용에서는 학습자 변인이 큰 차이를 가져오진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 1.3 학습전략과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 유무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 유무에 따라 학습전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각 학습전략을 종속변인으로 정하고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 유무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 유무에 따른 학습전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5>에 제시하였고 경험 유무별 학습전략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IV-6>에 제시하였다.

<표 IV-5> 영어권 국가체류경험 유무에 의한 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전략	연수경험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istening	무	123	3.19	.56	1.63	4.75
	유	42	3.48	.60	2.00	4.88
	합계	165	3.26	.58	1.63	4.88
Reading	무	123	3.29	.52	2.13	4.75
	유	42	3.43	.50	2.13	4.63
	합계	165	3.32	.52	2.13	4.75
Speaking	무	123	3.19	.42	2.00	4.13
	유	42	3.24	.54	2.13	4.38
	합계	165	3.21	.45	2.00	4.38
Writing	무	123	2.83	.54	1.50	4.25
	유	42	3.12	.54	1.63	4.50
	합계	165	2.90	.55	1.50	4.50

<표 IV-6> 학습전략과 영어권국가 체류경험유무에 대한 변량분석

전략	변량원	자유도	제Ⅲ유형 제공합	평균제 곱	F값	유의도
Listening	집단간	1	2.652	2.652	7.974	.005**
	집단내	163	54.200	.333		
	전 체	164	56.852			
Reading	집단간	1	.630	.630	2.299	.131
	집단내	163	44.658	.274		
	전 체	164	45.288			
Speaking	집단간	1	.075	.075	.352	.554
	집단내	163	34.575	.212		
	전 체	164	34.650			
Writing	집단간	1	2.663	2.663	9.047	.003**
	집단내	163	47.990	.294		
	전 체	164	50.653			

\*\*p<.01

<표 IV-5>에서 영어권 국가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모든 전략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모든 학습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 IV-6>에 제시된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4가지 전략 중에서 듣기와 쓰기 학습전략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 학습전략과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학습전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교육 경험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각 학습전략을 종속변인으로

로 정하고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학습전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7>에 제시하였고 경험 유무별 학습전략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IV-8>에 제시하였다.

**<표 IV-7> 사교육경험유무에 의한 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전략	사교육경험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istening	유	111	3.27	.59	1.63	4.75
	무	54	3.25	.58	2.25	4.88
	합계	165	3.26	.58	1.63	4.88
Reading	유	111	3.30	.54	2.13	4.75
	무	54	3.37	.48	2.13	4.63
	합계	165	3.32	.52	2.13	4.75
Speaking	유	111	3.22	.45	2.00	4.38
	무	54	3.17	.46	2.13	4.38
	합계	165	3.21	.45	2.00	4.38
Writing	유	111	2.90	.56	1.63	4.25
	무	54	2.90	.54	1.50	4.50
	합계	165	2.90	.55	1.50	4.50

**<표 IV-8> 학습전략과 사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변량분석**

전략	변량원	자유도	제Ⅲ유형 제공합	평균제곱	F값	유의도
Listening	집단간	1	.006	.006	.018	.892
	집단내	163	56.845	.349		
	전 체	164	56.852			
Reading	집단간	1	.139	.139	.501	.480
	집단내	163	45.149	.277		

	전 체	164	45.288			
Speaking	집단간	1	.097	.097	.455	.501
	집단내	163	34.554	.212		
	전 체	164	34.650			
Writing	집단간	1	.000	.000	.001	.973
	집단내	163	50.653	.311		
	전 체	164	50.653			

<표 IV-7>에서 사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듣기와 말하기 전략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모든 학습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 IV-8>에 제시된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 1.5 학습전략과 사교육 기간

사교육 기간에 따라 학습전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교육 기간을 독립변인으로, 각 학습전략을 종속변인으로 정하고 사교육 기간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교육 기간에 따른 학습전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9>에 제시하였고 사교육 기간 별 학습전략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IV-10>에 제시하였다.



<표 IV-9> 사교육기간에 의한 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전략	사교육기간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istening	무	54	3.25	.58	2.25	4.88
	6개월 미만	56	3.25	.62	1.63	4.50
	6개월~1년	12	3.45	.45	2.63	4.13
	1년 ~ 2년	14	3.11	.61	2.00	4.50
	2년 ~ 3년	2	3.37	.00	3.38	3.38
	3년 이상	27	3.31	.58	2.25	4.75
	합 계	165	3.26	.58	1.63	4.88
Reading	무	54	3.37	.48	2.13	4.63
	6개월 미만	56	3.29	.55	2.13	4.75
	6개월~1년	12	3.30	.45	2.50	4.00
	1년 ~ 2년	14	3.30	.64	2.38	4.63
	2년 ~ 3년	2	3.50	.53	3.13	3.88
	3년 이상	27	3.31	.54	2.38	4.75
	합 계	165	3.32	.52	2.13	4.75
Speaking	무	54	3.17	.46	2.13	4.38
	6개월 미만	56	3.28	.43	2.50	4.38
	6개월~1년	12	3.36	.44	2.50	4.13
	1년 ~ 2년	14	3.14	.55	2.25	4.00
	2년 ~ 3년	2	3.25	.35	3.00	3.50
	3년 이상	27	3.09	.47	2.00	3.88
	합 계	165	3.21	.45	2.00	4.38
Writing	무	54	2.90	.54	1.50	4.50
	6개월 미만	56	2.86	.56	1.63	4.13
	6개월~1년	12	3.14	.62	2.38	4.25
	1년 ~ 2년	14	2.87	.51	2.25	3.75
	2년 ~ 3년	2	2.37	.17	2.25	2.50
	3년 이상	27	2.93	.56	1.75	3.75

	합	계	165	2.90	.55	1.50	4.50
--	---	---	-----	------	-----	------	------

<표 IV-10> 학습전략과 사교육기간에 대한 변량분석

전략	변량원	자유도	제Ⅲ유형 제공합	평균제곱	F값	유의도
Listening	집단간	5	.851	.170	.483	.788
	집단내	159	56.001	.352		
	전 체	164	56.852			
Reading	집단간	5	.221	.044	.156	.978
	집단내	159	45.067	.283		
	전 체	164	45.288			
Speaking	집단간	5	1.043	.209	.987	.427
	집단내	159	33.607	.211		
	전 체	164	34.650			
Writing	집단간	5	1.371	.274	.884	.493
	집단내	159	49.283	.310		
	전 체	164	50.653			

각 전략의 평균값이 사교육 기간 별 집단에서 읽기 전략을 제외한 모든 전략에서 6개월~1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듣기, 말하기, 그리고 쓰기 전략의 사용에 사교육 여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기간의 차이가 뚜렷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자 변인(성별, 전공, 외국체류경험 유무, 사교육 유무 및 기간)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영어 학습의 4가지(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기능의 전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 보았는데 4가지 전략 중 쓰기학습전략만이 남녀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모든 전략의 평균값이 더 높았고 이는 여자가 학습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능별 구분 전략이 아닌 SILL을 이용한 설문을 통해서 나타났던 결과이기도 하고 대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점이다(조창영, 2001; 김태영, 2002; Dreyer & Oxford, 1995; Ehrman & Oxford, 1989).

둘째, 전공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면 말하기 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의 평균값이 예체능계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영어권 국가에 다녀온 경험의 유무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4가지 전략 중에서 듣기와 쓰기 학습전략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이 여행이나 어학연수 또한 영어권 국가에 다녀온 경우 보통 말하기 전략을 먼저 사용하기보다는 듣기 전략을, 교환학생이나 유학의 경우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강의를 듣기 위한 듣기 전략과 과제 제출을 위한 쓰기 전략을 우선시 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모든 전략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학습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교육 유무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듣기와 말하기 전략의 평균값이 사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의 분포가 대부분 회화학원이나 토익학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의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사교육 기간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사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계한 사교육

을 받지 못하거나,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됨으로 특별히 어떤 전략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각 전략의 평균값이 사교육 기간 별 집단에서 읽기 전략을 제외한 모든 전략에서 6개월~1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듣기나 말하기, 쓰기 전략의 사용이 초기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이후의 기간보다 더 자주 일어남을 보여준다.

## 2. 학습 스타일과 학습자 변인

학습자 변인(성별, 전공, 외국체류경험 유무, 사교육 유무 및 기간)이 각 기능별 학습 스타일에는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각 학습 스타일을 종속변인으로 정하고 학습자 변인에 따른 학습 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학습 스타일 11개 영역 중 현실 반응 방식 영역의 평균차이만이 유의미하였다. 남녀 집단 별 학습 스타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11>에 제시하였고 변량분석 결과는 <표 IV-12>에 제시하였다.

<표 IV-11> 성별에 의한 학습스타일의 평균 및 표준편차

영역	스타일	성별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현실 반응 방식	직설형	남자	87	2.87	1.02	1.00	5.00
		여자	78	2.55	.84	1.00	5.00
		합계	165	2.72	.95	1.00	5.00
	비유형	남자	87	3.95	.79	2.00	5.00

	여자	78	3.82	.84	2.00	5.00
	합계	165	3.89	.81	2.00	5.00

<표 IV-12> 학습스타일과 성별에 대한 변량분석

영역	스타일	변량원	자유도	제Ⅲ유형 제공합	평균제곱	F값	유의도
현실 반응 방식	직설형	집단간	1	4.272	4.272	4.80	.030*
		집단내	163	144.904	.889	5	
		전 체	164	149.176			
	비유형	집단간	1	.733	.733	1.09	.297
		집단내	163	109.303	.671	3	
		전 체	164	110.036			

\*p<.05

<표 IV-11>의 결과에서 보듯이 현실 반응 방식 영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직설형과 비유형 모두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이는 남자가 현실 반응 방식의 학습 스타일을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가 이러한 상반된 학습 스타일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남자들이 경험 할 수 있는 군대나 선후배와 같은 상하구분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리 잡게 되는 현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빈도가 더 높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표 IV-12>에 제시된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직설형만이 남녀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개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언어자료를 표면의 모습 그대로 다루기를 좋아하는 학습스타일을 선호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남자는 개념이나 언어를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며 비유를 통하여 이해를 하기 보다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개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언어자료를 표면의 모습 그대로 다루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학습스타일과 학습전략

#### 3.1 학습 스타일과 학습 전략의 관련성

학습스타일과 학습 전략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11개의 각 영역을 이루는 학습스타일의 선호도와 4가지 기능의 학습전략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3>에 제시되어있다. 학습 스타일의 선호도는 각 영역별 스타일의 점수 차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과제접근방식 영역에서 폐쇄형과 개방형의 선호도를 결정하기 위해 각 개인의 폐쇄형 점수에서 개방형 점수를 뺀 점수를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값이 양수가 나오면 그 학습자는 폐쇄형을 개방형보다 더 빈번히 사용함을 뜻하며 음수는 개방형을 선호하는 것을 뜻하고, 0이 나오면 폐쇄와 개방 두 스타일을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는 연속변수로써 같은 양수라 하더라도 그 값의 크기에 따라 폐쇄형 선호정도가 학습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즉 과제접근방식 변인의 값이 클수록 폐쇄형을 나타내고 값이 작을수록 개방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IV-13> 학습 스타일과 학습전략 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	---	---	---	---	----	----	----	----	----	----



전략은 가능성 대처 방식( $r=.171, p<.05$ ), 과제 접근 방식( $r=.207, p<.01$ )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구체형보다 직관형 선호도가 높을수록, 개방형보다 폐쇄형 선호도가 높을수록 말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쓰기 전략은 과제 접근 방식( $r=.240, p<.01$ ), 정보 습득 방식( $r=-.165, p<.05$ ), 현실 반응 방식( $r=.182, p<.05$ ), 언어 규칙 처리 방식( $r=.228, p<.01$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개방형보다 폐쇄형 선호도가 높을수록, 지엽형보다 포괄형 선호도가 낮을수록, 직설형보다 비유형 선호도가 높을수록, 귀납형보다 연역형 선호도가 높을수록 쓰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학습전략과 학습 스타일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전략은 가능성 대처 방식, 현실 반응 방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가능성 대처 방식이 증가할수록 즉, 직관형을 구체형보다 더 선호할수록 듣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실 반응 방식이 증가할수록 즉, 비유형을 직설형보다 선호할수록 듣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언어 자료를 표면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다루기를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보다는 개념이나 언어를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효율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비유를 통해 이해를 돕는 학습 스타일을 가진 학습자가 듣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보여준다. 또한 현실 지향적이고, 단계적 활동을 선호하고, 매 단계마다 무엇을 왜 하는지 알기를 원하는 학습 스타일보다는 미래 지향적이며, 가능성 탐색을 선호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며 또한 단계적 지도를 싫어하는 학습 스타일을 가진 학습자가 듣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직관



형, 사고형, 내향성이 많고 직관형의 외국어 능력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직관형이 상징과 어휘, 혹은 언어를 다루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Moody(1988)의 분석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hrman과 Oxford(1989)는 직관형의 사람들은 모든 전략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징과 언어의 추상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성격적 특성이 원인이라 하였다.

둘째, 읽기 전략은 가능성 대처 방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는 직관형 선호도가 높을수록 읽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실 지향적이고, 단계적 활동을 선호하고, 매 단계마다 무엇을 왜 하는지 알기를 원하는 학습 스타일보다는 미래 지향적이며, 가능성 탐색을 선호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며 또한 단계적 지도를 싫어하는 학습 스타일을 가진 학습자가 읽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보여준다.

셋째, 말하기 전략은 가능성 대처 방식, 과제 접근 방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구체형보다 직관형 선호도가 높을수록, 개방형보다 폐쇄형 선호도가 높을수록 말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실 지향적이고, 단계적 활동을 선호하고, 매 단계마다 무엇을 왜 하는지 알기를 원하는 스타일보다는 미래 지향적이며, 가능성 탐색을 선호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며 또한 단계적 지도를 싫어하는 학습 스타일을 가진 학습자가 말하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보여준다. 또한 발견학습을 선호하고, 일의 기한이나 규칙에 대한 염려 없이 느긋하게 학습을 즐기는 학습 스타일보다는 모든 학습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고, 일의 기한을 지키고, 미리 계획하며, 분명한 지시를 좋아하는 학습 스타일을 가진 학습자가 말하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쓰기 전략은 과제 접근 방식, 정보 습득 방식, 현실 반응 방식, 언어 규칙 처리 방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개방형보다 폐쇄형 선호도가 높을수록, 지엽형보다 포괄형 선호도가 낮을수록, 직설형보다 비유형 선호도가 높을수록, 귀납형보다 연역형 선호도가 높을수록 쓰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발견학습을 선호하고, 일의 기한이나 규칙에 대한 염려 없이 느긋하게 학습을 즐기는 스타일보다는 모든 학습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고, 일의 기한을 지키고, 미리 계획하며, 분명한 지시를 좋아하는 학습 스타일을 가진 학습자가 쓰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실 지향적이고, 단계적 활동을 선호하고, 매 단계마다 무엇을 왜 하는지 알기를 원하는 스타일보다는 미래 지향적이며, 가능성 탐색을 선호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며 또한 단계적 지도를 싫어하는 학습 스타일을 가진 학습자가 쓰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성을 찾아내고 규칙이나 이론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보다 규칙이나 이론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이끌어내고 일반화된 규칙을 갖고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을 가진 학습자가 쓰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민승기(2000)는 직관형은 기존의 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표면적으로 세부적인 수정(문법, 철자 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함순애(2005)와 비교하였을 때 듣기전략에서 전체로는 비유형이, 남자는 폐쇄형과 비유형이, 여자는 비유형이 설명력을 갖고 읽기 전략에서 전체로는 폐쇄형이 설명력을 갖으며 말하기 전략에서 전체와 여자가 폐쇄형이 설명력을 갖으며 쓰기 전략에서 남자는 연역형, 여자는 폐쇄형이 설명력을 갖는다

는 결과가 일치하였다.

### 3.2 학습 스타일이 학습 전략 사용에 미치는 효과

학습스타일이 학습 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영어의 기능별 학습전략 네 가지의 사용 정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놓고, 학습 스타일을 독립변인으로 놓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습자 변인들 중에 성별을 나타내는 남녀 두 집단은 스타일이나 전략 일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전체’, ‘남’, ‘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학습스타일의 각 영역을 이루는 스타일의 선호도가 학습 전략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독립변인인 학습 스타일은 각 영역별 스타일의 점수 차를 이용하였다. 학습스타일의 각 영역에 하나씩 변수가 존재하므로 총 11개의 독립변인 중 각 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전략 순으로 <표IV-14>부터 <표IV-17>까지 제시되어 있다.

#### • 듣기 전략

<표 IV-14> 학습스타일과 듣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표집	모형	예언변인	B	SE	$\beta$	t	R	$R^2$	F
듣기	전체	1	현실반응방식	.145	.034	.317	4.265***	.317	.100	18.190***
		2	현실반응방식	.141	.034	.308	4.181***	.349	.122	11.264***
			가능성대처방식	.068	.034	.148	2.001*			
	남	1	현실반응방식	.127	.049	.271	2.595*	.271	.073	6.732*
		2	현실반응방식	.120	.048	.256	2.493*	.348	.121	5.798**
			과제접근방식	.081	.038	.219	2.140*			

	여	1	현실반응방식	.157	.046	.362	3.383***	.362	.131	11.447***
		2	현실반응방식	.152	.045	.351	3.355***	.428	.183	8.420***
	3	학습상황선호정도	-.083	.038	-.229	-2.195*				
		현실반응방식	.131	.045	.301	2.878**	.480	.230	7.376***	
		학습상황선호정도	-.091	.037	-.252	-2.453*				
		반응시간처리방식	.091	.043	.223	2.122*				

\* p<.05, \*\* p<.01, \*\*\* p<.001

<표 IV-14>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우선 단계별로 선택된 예측변인들은 각 학습 전략의 사용 정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집단에서 학습 스타일 변인 11개 중에서 듣기 전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1 모형의 변인인 현실 반응 방식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듣기 전략 변수의 분산을 약 10%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제 2모형은 가능성 대체 방식을 추가하여 두 변인으로 듣기 전략의 약 12.2%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현실 반응 방식, 가능성 대체 방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 집단에서는 제1모형의 변인인 현실 반응 방식이 듣기 전략을 약 7.3%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제2모형은 과제 접근방식을 추가하여 두 변인으로 듣기 전략의 약 12.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현실 반응 방식, 과제 접근 방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 집단에서는 제1모형의 변인인 현실 반응 방식이 듣기 전략을 약 13.1%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제2모형은 학습 상황 선호 정도를 추가하여 두 변인으로 듣기 전략의 약 18.3%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제 3모형은 반응 시간 처리 방식을 더 추가하여 총 세 변인으로 듣기 전략의 약 23.0%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현실 반응 방식, 학습 상황 선호 정도, 반응 시간 처리 방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현실 반응 방식이 듣기 학습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듣기 전략 사용할 때 사실적인 정보나 생소한 내용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사물에 대한 이미지 또는 상징을 통해 비유적으로 생각하여 이해하기도 하는 직설형과 비유형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남자는 현실 반응 방식, 과제 접근 방식 순으로, 여자는 현실 반응 방식, 학습 상황 선호 정도, 반응 시간 처리 방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을 살펴 볼 때 학습 스타일이 듣기 전략 사용을 10%에서 12.2%까지 설명하고 있다. 학습 스타일과 듣기 전략 사용의 관계는 여학생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졌는데, 남학생의 설명도가 7.3%에서 12.1%에 이르는 반면, 여학생의 설명도는 13.1%에서 23.0%에 이르며 남학생보다 더 많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 읽기 전략

<표 IV-15> 학습스타일과 읽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표집	모형	예언변인	B	SE	$\beta$	t	R	$R^2$	F
읽기	전체	1	가능성대처방식	.075	.032	.182	2.361*	.182	.033	5.575*
			가능성대처방식	.087	.032	.210	2.716**	.243	.059	5.076**
		3	정보기억방식	-.073	.035	-.163	-2.111*			
			가능성대처방식	.085	.032	.206	2.686**	.288	.083	4.846**
			정보기억방식	-.084	.035	-.186	-2.402*			
			과제접근방식	.051	.025	.156	2.046*			
남	1	가능성대처방식	.084	.042	.213	2.008*	.213	.045	4.031*	

\* p<.05, \*\* p<.01, \*\*\* p<.001

전체집단에서 학습 스타일 변인 11개 중에서 읽기 전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1 모형의 변인인 가능성 대처 방식은 읽기 전략 변수의 분산을 약 3.3%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제 2모형은 정보 기억 방식을 추가하여 두 변인으로 읽기 전략의 약 5.9%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제 3모형은 과제 접근 방식을 더 추가하여 총 세 변인으로 읽기 전략의 약 8.3%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가능성 대처 방식, 정보 기억 방식, 과제 접근 방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 집단에서는 제 1모형의 변인인 가능성 대처 방식이 읽기 전략을 약 4.5%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가능성 대처 방식 이외의 다른 변인들은 읽기 전략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자 집단에서는 읽기 전략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가능성 대처 방식, 정보기억방식, 과제접근방식이 읽기 학습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읽기 학습의 경우 문자언어를 이해할 때 가능성을 탐색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직관형과 단계적 활동을 통해 읽기를 진행해 나가며 매 단계마다 어떤 내용을 읽는지 알기를 원하는 구체형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만이 가능성 대처 방식이 읽기 학습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말하기 전략

<표 IV-16> 학습스타일과 말하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표집	모형	예언변인	B	SE	$\beta$	t	R	$R^2$	F
말하기	전체	1	과제접근방식	.058	.022	.207	2.696**	.207	.043	7.269**
		2	과제접근방식	.056	.021	.198	2.610**	.262	.068	5.955**

			가능성대처방식	.058	.027	.161	2.118*			
	남	1	가능성대처방식	.076	.037	.217	2.054*	.217	.047	4.218*
	여	1	과제접근방식	.070	.032	.243	2.185*	.243	.059	4.775*

\* p<.05, \*\* p<.01, \*\*\* p<.001

전체집단에서 학습 스타일 변인 11개 중에서 말하기 전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1 모형의 변인인 과제 접근 방식은 말하기 전략 변수의 분산을 약 4.3%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제 2모형은 가능성 대체 방식을 추가하여 두 변인으로 듣기 전략의 약 6.8%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는데 이는 과제 접근 방식, 가능성 대처 방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 집단에서는 제1모형의 변인인 가능성 대처 방식이 말하기 전략을 약 4.7%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 이 외 다른 변인들은 말하기 전략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지 못했다. 여자 집단에서는 제1모형의 변인인 과제 접근 방식이 말하기 전략을 약 5.9%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이 외 다른 변인들은 말하기 전략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과제 접근 방식, 가능성 대처 방식이 말하기 학습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말하기 학습의 경우 언제 묻고 대답할 지에 대한 기한을 지키거나 상대방의 분명한 지시에 따라 대답을 하는 폐쇄형과 상대방의 반응이나 재촉에 대한 염려가 없이 느긋하게 말하고자 하는 개방형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남자는 가능성 대처 방식이, 여자는 과제 접근 방식, 말하기 학습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쓰기 전략

<표 IV-17> 학습스타일과 쓰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표집	모형	예언변인	B	SE	$\beta$	t	R	$R^2$	F
쓰기	전체	1	과제접근방식	.082	.026	.240	3.163**	.240	.058	10.006**
		2	과제접근방식	.072	.026	.210	2.782**	.309	.095	8.539***
			언어규칙처리방식	.091	.035	.196	2.592**			
		3	과제접근방식	.073	.026	.213	2.855**	.348	.121	7.399***
			언어처리규칙방식	.082	.035	.177	2.344*			
			현실반응방식	.070	.032	.162	2.174*			
	남	1	언어규칙처리방식	.117	.052	.236	2.242*	.236	.056	5.026*
		2	언어처리규칙방식	.127	.052	.256	2.463*	.318	.101	4.716*
			현실반응방식	.094	.046	.213	2.053*			
	여	1	과제접근방식	.076	.035	.239	2.147*	.239	.057	4.608*

\* p<.05, \*\* p<.01, \*\*\* p<.001

전체집단에서 학습 스타일 변인 11개 중에서 쓰기 전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1 모형의 변인인 과제 접근 방식은 쓰기 전략 변수의 분산을 약 5.8%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제 2모형은 언어 규칙 처리 방식을 추가하여 두 변인으로 쓰기 전략의 약 9.5%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제 3모형은 현실 반응 방식을 더 추가하여 총 세 변인으로 쓰기 전략의 약 12.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제 접근 방식, 언어 처리 규칙 방식, 현실 반응 방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 집단에서는 제1모형의 변인인 언어 규칙 처리 방식이 쓰기 전략을 약 5.6%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제2모형은 현실 반응 방식을 추가하여 두 변인으로 쓰기 전략의 약 10.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언어 규칙 처리 방식, 현실 반응 방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 집단에서는 제1모형의 변인인 과제 접근 방식이 쓰기 전략을 약



5.7%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이것은 이 외 다른 변인들은 쓰기 전략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과제 접근 방식, 언어 처리 규칙 방식, 현실 반응 방식이 쓰기학습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쓰기 학습의 경우 다른 학습 전략보다 더 많은 학습 스타일의 영역이 관련되어 있었는데 듣기나 말하기 학습 전략에서 영향을 미치는 학습 스타일을 포함해 일반화된 규칙과 이론을 갖고 글쓰기를 선호하는 연역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글쓰기를 시작하는 귀납형이 함께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남자는 언어 처리 규칙 방식, 현실 반응 방식 순으로, 여자는 과제 접근 방식이 쓰기학습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남녀가 동일한 학습스타일을 갖고 있더라도 다음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스타일 사용을 보여준다.

또한 스타일은 4가지 언어 기능 별로 듣기 학습 전략의 약 12.2%, 읽기 전략의 약 8.3%, 말하기 전략의 약 6.8%, 쓰기 전략의 약 12.1%를 설명하고 있듯이 주로 듣기나 쓰기 전략에 있어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음성언어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 전략에서 여자(13.1%~23.0%, 5.9%)는 남자(7.3%~12.1%, 4.7%)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1.1 학습자 변인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

우선 본 연구는 Cohen과 Chi(2004)가 개발한 LSUII와 Oxford의 SILL의 목록 비교를 통해 중복되는 것을 수정 보완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4가지 기능 별 학습전략 자체적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습자 변인(성별, 전공, 외국체류경험 유무, 사교육 유무 및 기간)에 따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4가지 기능 별 학습전략(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조사 결과 도출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 보았는데 4가지 전략 중 쓰기 학습전략만이 남녀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면 말하기 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의 평균값이 예체능계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영어권 국가에 다녀온 경험의 유무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4가지 전략 중에서 듣기와 쓰기 학습전략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교육 유무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섯째, 사교육 기간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 변인 중 성별과 영어권 국가에 다녀온 경험의 유무에 따라 나눈 집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각 학습자 변인에 따른 학습전략의 사용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전략에서 다른 전략들은 모든 변인과의 분석에서 3.1 이상의 평균값을 보였으나, 쓰기 전략의 평균값이 거의 대부분 3.0 이하이거나 몇 개만이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것은 변인 별 차이보다는 쓰기 전략의 사용이 전체전략의 사용에 못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이 4가지 기능을 골고루 사용하는 학습 전략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인지이론에 근거해 구성되어진 SILL을 통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지만, 영어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각 4가지 기능과 학습자 변인과의 차이 분석을 위해 영어 기능적으로 보다 균형 있는 전략 목록을 만들고자한 사실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겠다.

## 1.2 학습자 변인에 따른 학습 스타일의 차이

두 번째로 본 연구는 Cohen, Oxford, 그리고 Chi(2001)가 개발한 학습 스타일 조사지 LSS를 시간적 여건을 고려, 문항 수를 30문항으로 조절하여 학습자 변인(성별, 전공, 외국체류경험 유무, 사교육 유무 및 기간)

에 따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11가지 영역 23가지 학습스타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하였다. 그 조사 결과 도출된 중요한 사항은 현실 반응 방식 영역에서 직설형만이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 변인과 학습전략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 변인과 학습 스타일의 관계에서도 성별이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 1.3 학습전략과 학습 스타일

세 번째로 학습전략과 학습 스타일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듣기전략은 가능성 대처 방식, 현실 반응 방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읽기 전략은 가능성 대처 방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말하기 전략은 가능성 대처 방식, 과제 접근 방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쓰기 전략은 과제 접근 방식, 정보 습득 방식, 현실 반응 방식, 언어 규칙 처리 방식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관형 선호도가 높을수록 이해기능에 속하는 읽기와 듣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폐쇄형 선호도가 높을수록 표현기능에 속하는 말하기와 쓰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습 스타일이 학습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학습전략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학습 스타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현실 반응 방식이 듣기 학습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남자는 현실 반응 방식, 과제 접근 방식 순으로, 여자는 현실 반응 방식, 학습 상황 선호 정도, 반응 시간 처리 방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녀 모두 가능성 대처 방식, 정보기억방식, 과제접근방식이 읽기 학습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만이 가능성 대처 방식이 읽기 학습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 모두 과제 접근 방식, 가능성 대처 방식이 말하기 학습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남자는 가능성 대처 방식이, 여자는 과제 접근 방식, 말하기 학습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녀 모두 과제 접근 방식, 언어 처리 규칙 방식, 현실 반응 방식이 쓰기학습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남자는 언어 처리 규칙 방식, 현실 반응 방식 순으로, 여자는 과제 접근 방식이 쓰기학습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의 하나는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이 어느 한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성검사인 MBTI검사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할 때 실시한 표준화 검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의 성격 유형 중 내향이 56.3%, 감각이 73.2%, 사고가 56.8%, 판단이 54.82%의 선호 분포를 보여(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1995, p.307) 편중 정도가 54~73%(평균 70%)로 상당히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는 학습 스타일의 편중현상이 가능성 대처 방식과 과제 접근 방식, 현실 적용 방식에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제언

외국어 습득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한 복잡한 과정이며, 다소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므로 외국어를 배우는 데는 한 가지의 유일한 방법만이 있을 수는 없다. 때문에 학습자들의 학습 상황이나 학습전략, 그리고 학습스타일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방법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습자들에게 학습 전략의 특성 및 유형과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전략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어려운 영어 학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를 도와 성공적인 영어 학습자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습전략과 학습 스타일에 대한 몇 가지 교육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현장에서는 언어의 네 기능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효율적인 학습 전략들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Oxford(1990)는 자신이 구분한 모든 전략들이 언어 학습의 4가지 기능(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과 밀접히 연관이 있으며, 직접 전략(direct strategies)과 간접 전략(indirect strategies)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주요하게 각 기능과 연관되는 전략들을 분류해 놓고 있으나, 한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숙희(1998)의 연구는

Oxford(1990)의 언어 학습 전략 조사서(SILL: ESL/EFL student version)를 사용하여 언어의 각 기능별 학습 전략을 조사하였는데, Oxford(1990)가 밝혔던 각 기능과 연관 있는 전략에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힌 학습 전략이 모든 학습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영어 학습을 담당하는 교사나 교수들은 담당하는 학습자에게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학습에 효과적인 전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서 Cohen과 Chi(2004)가 개발한 LSUI와 Oxford의 SILL의 목록 비교를 통해 중복되는 것을 수정 보완한 4가지 기능 자체적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언어 전략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SILL이 전략 사용의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된 설문지라면, 본 연구의 설문지는 영어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습 전략에 대한 지도를 할 때는 보다 영어의 과제 중심, 또는 기능 중심의 전략 목록이 유용하다고 본다. 기능 중심의 학습 전략 목록이 신뢰성이 있으나 연구나 현장 적용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한지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습전략의 선택이 학습 스타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학습전략 훈련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있다. 때문에 학습전략 훈련을 계획할 때 다양한 전략을 골고루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학생들의 학습스타일에 대한 파악을 함께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정한 학습 스타일을 선호하는 학생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거나 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학습 전략에 대해 교사의 인식이 갖추어지면

학생들의 필요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훈련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어 학습의 현장에서는 영어 자체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울러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 지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자신의 학습 스타일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학습자, 나아가서 자신이 자주 쓰는 학습 전략과 또 알지 못하던 많은 학습 전략을 배우고 활용하는 능력을 소유한 학습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교육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학습자를 기르는 것이 영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1995).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 연구소
- 김태영. (2002). *한국 고등학생들의 동기 및 학습전략유형과 영어능숙도와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민승기. (2000). *성격이 성인 영어학습자의 쓰기 과정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박기표. (1999). The effective of strategy instruction on listening comprehension. *영어교육*, 54, 3-16.
- 박미애. 2006. *중학교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전략 사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숙희. (1998). 중학생의 영어 기능 영역별 학습방략 분석. *언어와 언어교육*, 13(1), 55-90.
- 박영예. (1999). 대학생들의 학습전략, 학습스타일, 학습자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영어교육*, 54(4), 281-308.
- 이성원, 이은지. (2004) 한국 중학생들의 성격과 성별이 영어 전략사용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59(2). 269-292.
- 이효웅. (1994). 외국어 학습 책략에 관한 연구: 중·고·대학생을 중심으로. *영어교육*, 48, 51-99.
- 오준일. (1996). 태도와 성별이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51(2), 35-54.
- 조창영. (2001). *한국 중·고등학생의 영어학습책략: 성격, 학습유형 및*

-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광주.
- 채미정. (2001). 초등영어학습자의 학습전략 분석 및 지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함순애. (2005). 한국 대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이 영어 학습 전략 사용과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Foreign Language Education*, 12(1), 298-300.
- Bedell, D., & Oxford, R. L. (1996).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learning strategies in the People's of Republic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R. L. Oxford (E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ound the world: Cross-cultural perspectives* (pp. 47-6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s at Manoa, Second Language Teaching & Curriculum Center.
- Bialystok, E. (1978). A theoretical model of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8, 69-83.
- Brown, H. D. (1994). *Teaching by Principles*. Ea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hamot, A. U. & Kupper, L. (1989). Learning strategies in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Foreign Language Annals*. 22: 13-24.
- Chamot, A. U. & O'Malley, J. M. & (1987). The cognitive academic language learning approach: A bridge to the mainstream. *TESOL, Quarterly*. 21: (pp.223-249).
- Chapelle, C., & Roberts, C. (1986). Field independence and ambiguity tolerances predictors proficiency in English as a second

- language. *Language Learning*, 36(1), 27-46.
- Cohen, A. D. (1998). *Strategies in learning and using a second language*. New York: Longman.
- Cohen, A. (2003). The learner's side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Where do strategies, styles, and tasks meet?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41(3), 279-291.
- Cohen, A. & Chi, J. (2004). *Language strategy use inventory and index*. Retrieved September, 1, 2004, from [http://www.carla.umn.edu/about/profiles/CohenPapers/language\\_survey.pdf](http://www.carla.umn.edu/about/profiles/CohenPapers/language_survey.pdf).
- Cohen, A., Oxford, R., Chi J. (2001). *Learning style survey*. Retrieved September, 1, 2004, from [http://www.carla.umn.edu/about/profiles/CohenPapers/Style\\_Survey.pdf](http://www.carla.umn.edu/about/profiles/CohenPapers/Style_Survey.pdf).
- Dansereau, D. F. (1985). Learning strategy research, In J. W. Segal, S. F. Chipman & R. Glaser (Eds.), *Thinking and learning skills: Relating learning to basic research*, 209-40. Hilldale, NJ: Erlbaum.
- Dreyer, C., & Oxford, R. L. (1996). Learning strategies and other predictors of ESL proficiency among Afrikaans in South Africa. In R. L. Oxford(E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ound the world: Cross-cultural perspectives*, 61-74. Honolulu: University of Hawai's at Manoa, Second Language Teaching & Curriculum Center.

- Ehrman, M., & Oxford, R. L. (1990). Adult language learning styles and strategies in an intensive training setting. *Modern Language Journal*, 79(1), 67-89.
- Ehrman, M., & Oxford, R. L. (1995). Cognition plus: Correlates of language learning succes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9(1), 67-89.
- Ehrman, M., & Oxford, R. L. (1989). Effects of sex differences, career choice, and psychological type on adult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3(1), 1-13.
- Eliason, P. A. (1995). *Difficulties with cross-cultural learning-styles assessment*. In J. Reid (Ed.). Learning styles in the ESL/EFL classroom (pp. 19-33). Boston, Massachusetts: Heinle & Heinle.
- Elliott, A. (1995). Foreign Language phonology: Field independence, attitude, and the success of formal instruction in Spanish pronunciation.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9(4), 530-542.
- Ellis, R. (199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 J., & Oxford, R. (1995). A closer look at learner strategies, L2 proficiency, and gender. *TESOL Quarterly*, 29, 261-297.
- Ham, S. (2002). The Self-efficacy model of language learning strategy and EFL reading achievement. *English Teaching*, 53(4), 155-173.

- Hosenfield, C. (1976). Learning about learning: Discovering our students' strategies. *Foreign Language Annals*, 9: 117-129.
- Jung, Y. S. (1998). The effect of TOEIC listening strategy instruction on students' TOEIC listening scores. *English Teaching*, 53(4), 135-153.
- Kaylani, C. (1996). The influence of gender and motivation on EFL learning strategy in Jordan. In R. L. Oxford (E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ound the world: Cross-cultural perspectives* (pp. 75-88).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Second Language Teaching & Curriculum Center.
- Keefe, J. W. (1979). Learning style: An overview. In J. W. Keefe (Ed.), *Student learning style: Diagnosing and prescribing programs*, 1-17,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les.
- Kinsella, K. (1993). *Perceptual learning preferences survey*. Oakland, CA: Multifunctional Resource Center.
- Levine, A., Reves, T., & Leaver, B. L. (1996).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nd Israeli versus Russian cultural-educational factors. In R. L. Oxford (E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ound the world: Cross-cultural perspectives* (pp.35-45).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Second Language Teaching & Curriculum Center.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cGoarty, M.,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n introduction and two related studies: In A. Fairchild & C. Valadez (Eds.),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sues and strategies*, 56-74.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 Moody, R. (1988). Personality preferences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2(1), 384-401.
- Myers, I. B. (1972). *Introduction to Personality Type (4th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Nyikos, M., & Oxford, R. L. (1993). A factor analytic study of language learning strategy use: Interpretations from information-processing theory and social psycholog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7, 11-22.
- O'Brien, L. (1990). *Learning channel Preference checklist(LCPC)*. Rockville, ND: Specific Diagnostic Services.
- O'Malley, J. M. & Chamot, A. U.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ord, R. L., & Nyikos, M. (1989). Variables affecting choice of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by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3(2), 291-300.
- Oxford, R. L., Park-Oh, Y. Y., Ito, S., & Sumrall, M. (1993). Japanese by satellite: Effects of motivations language learning styles and strategies, gender, course level, and previous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on Japanese language achievement, *Foreign Language Annals*, 26(3), 359-371.

- Oxford, R. L. & Grookall, D. (1998). Learning strategies in J. B. Gleason (Ed.) *You can take it with you: Helping students maintain second language skills*, 23-49.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Oxford, R. L. (1993). *Style analysis survey(SAS)*. Tuscaloosa, AL: University of Alabama.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 York : Newbury House/Harper and Row.
- Park, G. P. (1995). Beliefs, learning strategy use, and L2 proficiency. *English Teaching*, 50(2), 301-319.
- Politzer, R. (1983). *An exploratory study of self-reported language read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achievement*.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6, 54-65.
- Politzer, R., & McGroarty, M. (1985). An exploratory study of learn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ship to gains in linguistic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TESOL Quarterly*, 19, 103-123.
- Reid, J. (1984). *Perceptual Learning Styles Preference Questionnaire*. Laramie: University of Wyoming.
- Reid, J. M. (Ed). (1995). *Learning styles in the ESL/EFL classroom*. New york: Neinle & Heinle.
- Reiss, M. (1985). The good Lanugage learner: Another look. *The Canadian Morden Language Review*. 41, 511-523.

- Rossi - Le, L. (1995). Learning styles and strategies in adult immigrant ESL students. In J. Reid (Ed.) *Learning styles in the ESL/EFL classroom*, 118-125. Boston, MA : Heinle & Heinle.
- Rubin, J. (1975). What the good language learner can teach us. *TESOL Quarterly*, 9, 41-51.
- Rubin, J. (1987). Learner strategies: Theoretical assumptions, research history and typology. In A. Wenden & J. Rubin (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pp. 15-30). Ea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ubin , J., & Thompson, I. (1982). *How to be a more successful language learner*. Boston : Heinle & Heinle.
- Rubin, J. & Thompson, I. (1982). *How to be a more successful language learner*.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 Schmeck, R. (1988). Individual differences and learning strategies. In C. Weinstein, E. Goetz & P. Alexander (Eds.), *Learning and study strategies*, 171- 191. New York: Academic Press.
- Song, M. J. (1999). Reading strategies and second language reading ability: The magnitude of the relationship. *English Teaching*, 54(3), 73-95.
- Stern, H. H. (1975). What can we learn from the good language learner?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34, 304-318.
- Tran, T. V. (1988). Sex difference in English language acculturation



- and learning strategies among Vietnamese adults 40 and over in the United States. *Sex Roles*, 19, 747-785.
- Vandergriff, L. (1992). *The Comprehension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French) listen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Canada.
- Weden, A. (1987). How to be a successful language learner: Insight and prescriptions from L2 learners. In A. Weden, & J. Rubin, (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pp. 103-117).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Weinstein, C., Goetz, E. T., & Alexander, P. A.(Eds.). (1998). *Learning and study strategies: Issues in assessment, instruction, and evaluation*. San Diego: Academic Press.
- Weinstein, C.E., & Mayer, R.E. (1986). The teaching of learning strategies. In M. Wittroc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pp. 315-317). New York: Macmillian.

## 부록

### 《 배경 설문 》

1. 성별 : 남 / 여
2. 전공 : 인문 · 사회 계열 ( \_\_\_\_\_ 전공), 예술 · 체육 계열 ( \_\_\_\_\_ 전공)  
이 · 공학 계열 ( \_\_\_\_\_ 전공), 의 · 약대 계열 ( \_\_\_\_\_ 전공)
3. 과거 외국(영어권 국가)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기간을 적어주세요.  
① \_\_\_\_\_ 없다.  
② \_\_\_\_\_ 있다. \_\_\_\_\_ 년 \_\_\_\_\_ 개월
4. 영어권 국가 (3번 문항의 ②에 답한 경우만)  
영어권 국가에 다녀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_\_\_\_\_ 부모님이 외국으로 이사하셔서  
② \_\_\_\_\_ 본인의 영어공부를 위해 어학연수를 다녀오기 위해  
③ \_\_\_\_\_ 기타 (상세히 기록해 주세요)  
\_\_\_\_\_
5. 사교육 여부  
① 영어와 관련된 학원을 다니고(다닌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② 영어와 관련된 학원을 다녔다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6개월 미만 \_\_\_\_\_ 6개월~1년 \_\_\_\_\_ 1년~2년  
\_\_\_\_\_ 2년~3년 \_\_\_\_\_ 3년 이상
6.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곳에만 표시)  
① \_\_\_\_\_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② \_\_\_\_\_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③ \_\_\_\_\_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어서  
④ \_\_\_\_\_ 나의 미래의 직업에 필요하므로  
⑤ \_\_\_\_\_ 여행하는데 필요하므로  
⑥ \_\_\_\_\_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영어 학습 스타일에 관한 설문조사 》

다음 설문지는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정답이나 더 좋은 답이 없으며 질문 내용이 자신이 평소 영어를 공부하는 스타일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V 표시해 주십시오. 각 질문에 대해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평소 에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그렇다
1	나는 공부할 내용을 글로 적으면 더 잘 기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매체보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읽기보다는 강의를 들어서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누군지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화를 할 때).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발걸음을 옮기거나 발장단을 맞추는 등 몸을 움직일 때 생각을 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면 더 잘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개인 또는 일대일 게임이나 활동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타입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더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배우는 외국어의 단어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기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긴 설명보다 짧고 단순한 대답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대강의 주제를 알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그렇다
15	나는 무엇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세세한 예를 필요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말을 듣고 빈칸을 채워 넣는 활동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에게는 정보를 요약하는 일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여러 생각을 모아야 하는 활동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모든 단어를 다 알지 못하면 이해하는데 애를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복잡한 수수께끼나 추리를 푸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 일의 모든 면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서로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비슷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묶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영어를 배울 때 일반적인 유형을 먼저 배우고 그 후에 구체적인 예를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문법의 규칙이나 요소들이 포함된 예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언어규칙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영어를 말하거나 쓸 때 모든 문법요소들이 꼭 일치하도록 유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영어를 말하거나 쓸 때 문법에 주의를 기울이면 전달할 내용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언어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쓰거나 말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 놓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비유나 연상을 통해서 배우고, 예화나 예가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영어를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비유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영어 학습 전략에 관한 설문조사 》

다음 설문지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방법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는 정답이나 더 좋은 답은 없으며, 질문 내용이 자신의 평소 학습 방법과 일치하는 정도를 V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그렇다
1	다른 사람이 영어로 말할 때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영어 TV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영어로 제작된 영화를 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들은 낯선 영어 발음에 관해 미국사람에게 물어 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미국사람들이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단어 강세나 문장 강세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5	영어를 들을 때 어떤 부분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어떤 부분은 무시하여 대강의 내용이해를 목표를 하는 듣기방법을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의 맥락에 주목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천천히 말하거나 다시 한 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알아듣기 위해서 말의 어조를 힌트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가능한 많은 양의 글을 영어로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수준에 맞는 영어 읽을거리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제목이나 소제목 같은 글의 구조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12	영어로 쓰여진 글을 처음에는 대충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주의를 기울여 다시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영어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글을 읽을 때 머릿속이나 책의 여백에 요약해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번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그렇다
16	읽는 내용의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비슷한 내용을 추측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새 문법사항을 여러 다른 상황에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여 자신감을 기른다.	①	②	③	④	⑤
18	외국인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영어로 말하다가 실수를 할까봐 두렵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로 말해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영어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추측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1	요청하는 내용이나, 사과, 또는 불평하는 내용 등을 미국인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말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2	선생님이나 영어 원어민에게 내가 영어로 말할 때 틀린 부분을 고쳐달라고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쓰려는 정확한 표현을 모를 때 새 말을 만들어 내거나 추측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4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영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 몸짓이나 손짓 같은 제스처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영어를 배울 때 느끼는 감정들을 영어 학습 일기에 적어 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26	새 단어를 쓰는 연습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영작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완성된 글이 얼마나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영어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써보려 한다. (예 : 메모, 편지 등)	①	②	③	④	⑤
29	나의 생각을 전달할 정확한 표현을 모를 때 다른 표현을 써 본다.	①	②	③	④	⑤
30	더 써나가기 전에 내가 쓴 것을 다시 읽어 본다.	①	②	③	④	⑤
31	단어를 찾거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이나, 단어집 같은 참고서적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다른 사람, 특히 미국사람에게 글을 읽고 고쳐달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 ABSTRACT

An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  
among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Learning Styles, and  
Learner Variables  
of EFL University Students.

Lee You Jin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Advisor: Prof. Suh Jae Suk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three purposes : (1) It examines how learning strategy use is affected by such learner variables as gender, major, experience to visit experience to English-speaking world and extra-curricular activity. (2) It examines how learning style use is affected by such learner variables. (3) It investigates how learning strategies and learning styles are interrelated and how learning strategies are affected by learning styles.

For this study, 165 Korean university students were asked to fill out two kinds of questionnaire, one is modified, classified by four skills and based on Oxford(1990)'s SILL(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and Cohen & Chi(2004)'s LSUII(Language

Strategy Use Inventory and Index) for learning strategies, the other is based on Cohen, Oxford, & Chi(2001)'s LSS(Language Style Survey) for learning styles.

In the statistical treatment of collected data, SPSS Version 12.0 was us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means of One-way ANOVA to find ou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earner variables and learning strategy and between learner variables and learning style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were also used for analyzing the correlation of the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tistical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only in the use of writing strategy and show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which was divided by whether to visit experience to English-speaking world only in the use of listening and writing strategy.

Second, the statistical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n the use of Literal style in Part 11<HOW LITERALLY I TAKE REALITY>(Cohen, 2001).

Third, the students' choice of learning strategie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some dimensions in learning style preferences such as metaphoric and intuitive style in the use of listening strategy, intuitive style in the use of reading strategy, intuitive and closure-oriented style in the use of speaking strategy, deductive and



metaphoric and closure-oriented style in the use of writing strategy. Learning styles explained about 12.2% of listening strategy use, about 8.3% of reading strategy use, about 6.8% of speaking strategy use, about 12.1% of writing strategy use. Also, It explained highly in female group(13.1%~23.0%, 5.9%) rather than male group(7.3%~12.1%, 4.7%) of listening and speaking strategy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evidence that strategies will be important factors in predict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and in constructing English Strategies Training Model for listening,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which is more strategy related research in the area of EFL and that learning styles are considerably affected by the students' educational background and closely related to their strategy uses.

